



2 0 1 0
ANNUAL
REPORT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LIFE INSURANCE PHILANTHROPY FOUNDATION



설립 취지문

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생명보험이 지향하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전 일생에 걸친 '생애 보장'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합니다. 따라서 본 재단은 정관에 정한 바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생명보험회사의 자금으로 순수한 자선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대상자들에 실질적인 혜택을 전달하며, 우리 사회 복지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재단은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지원하고, 사회적인인에 대한 지원사업 및 자살예방활동 등 생명을 존중하는 공익 서비스를 개인 및 단체에 무상으로, 평등하게,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본 재단은 이러한 공익활동을 통해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실천하는 한편,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선진국을 실현하는데 기여합니다.

ABOUT THIS REPORT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사회공헌활동 및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그간 추진해온 사회공헌활동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2 0 1 0
ANNUAL
REPORT

CONTENTS

● INTRO

04	인사말
07	우리의 사명과 비전
08	재단 연혁, 조직도
10	주요 사업
11	출연사
12	재단설립
16	2008~2010 하이라이트

●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18	지원사업소개
24	사업별 세부 지원현황
26	지원사례
34	인터뷰

● 자살예방 지원사업

38	지원사업소개
42	사업별 세부 지원현황
44	지원사례
50	인터뷰

●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

52	지원사업소개
56	사업별 세부 지원현황
58	지원사례
66	인터뷰

● 저출산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

68	지원사업소개
72	사업별 세부 지원현황
74	지원사례
78	인터뷰

● 사회적인 지원사업

80	지원사업소개
83	사업별 세부 지원현황
84	인터뷰
86	2008~2010 사업실적

인사말

● Chairman's Greetings

생명보험이 지향하는
'생애보장 정신'을
바탕으로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07년 12월 27일, 16개 생명보험회사가 출연하여 설립된 복지전문 공익법인입니다.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생명보험의 생애보장 정신을 우리 사회에 실현하기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자살예방 지원사업,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 저출산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저희 재단은 그동안 일관되게 '생명존중'과 '생애보장 정신'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새로운 사회공헌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단기간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설립 첫해에는 사업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수행하여 정부 및 의료·복지·학계의 관계자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공모사업과 더불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새생명지원센터), KBS 사랑의 리퀘스트,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치매가족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단체와 다양한 협약사업을 시행하여 수혜자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 번째 해에는 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파트너 단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고 재단의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는 등 복지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재단은 앞으로도 복지현장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생명존중과 생애보장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기획하여 행복 복지공동체를 실현하는데 더욱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연해 주신 생명보험회사들의 뜻에 맞게 사회의 소외된 곳,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달려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책임 있게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재단이 어떠한 역경에도 좌절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곳곳이 복지전선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질책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소중한 재원을 출연해 주시는 출연 생명보험회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존중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겠습니다.

2011년 6월

(재)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이시형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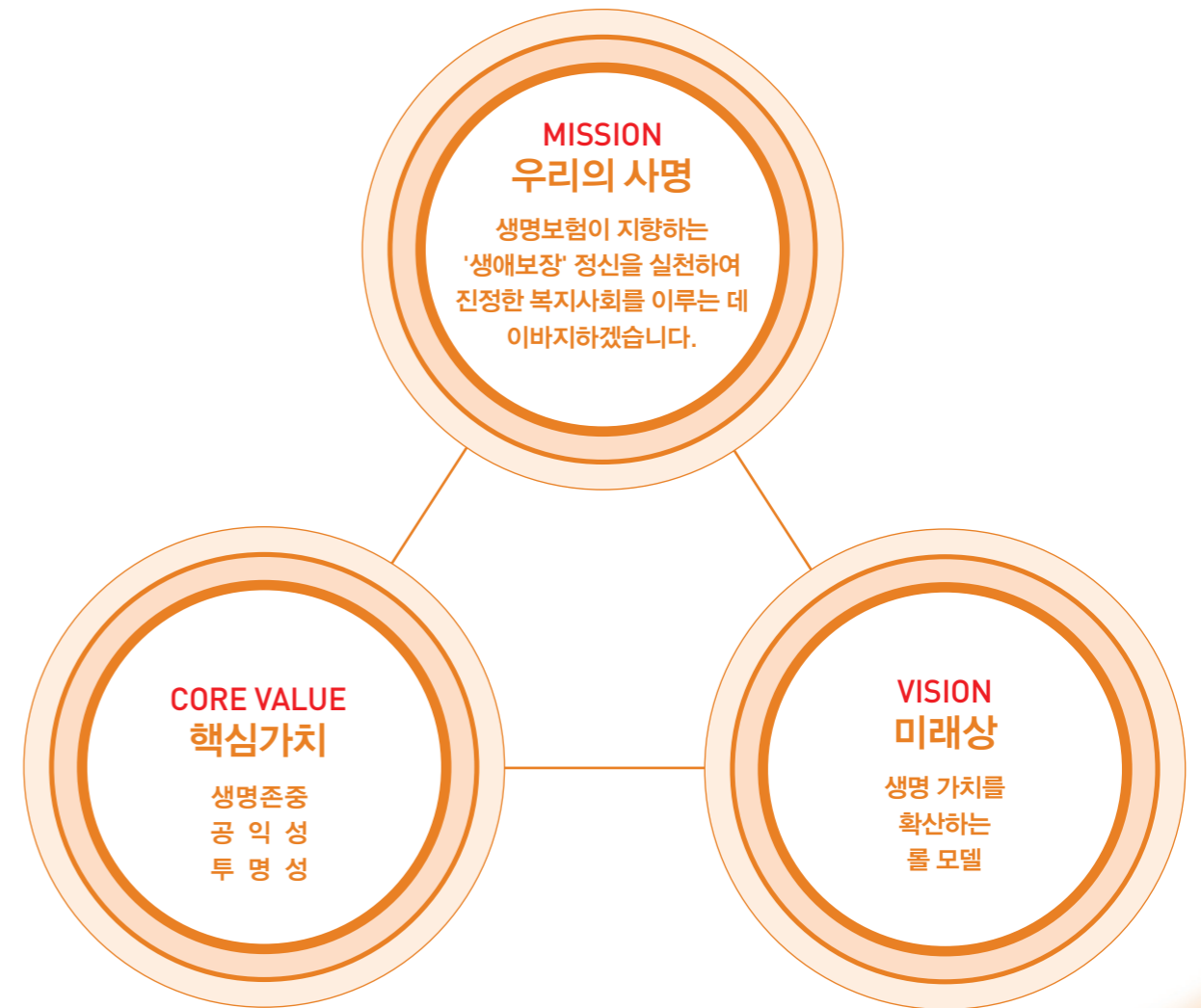
Life Insurance Philanthropy Foundation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FI (Foundation Identity)는 생명사랑과 따뜻한 사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Design Concept | 하트 모양에 사용된 오렌지색에서 붉은 색상의 변화는 생명사랑과 희망의 빛을 상징하며, 받쳐주는 손길의 갈색 색상은 생명의 근원인 대지를 상징하며, 글자에 사용된 녹색의 색상은 따뜻한 사회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사명과 비전 ● Mission & Vision



재단연혁 ● Foundation History

2007

12월	보건복지부 설립허가(허가 제152호). 12월 27일
-----	-------------------------------

2008

01월	재산 출연 및 설립등기
02월	창립기념식 및 헌판식
03월	재산 출연
05~10월	목적사업 공고·접수 -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자살예방 지원사업,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 저출산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
08~10월	재산 출연
09월	재단 홈페이지 오픈
10월	재단 디선포
12월	사회적익인 지원사업 : 소방방재청 부문 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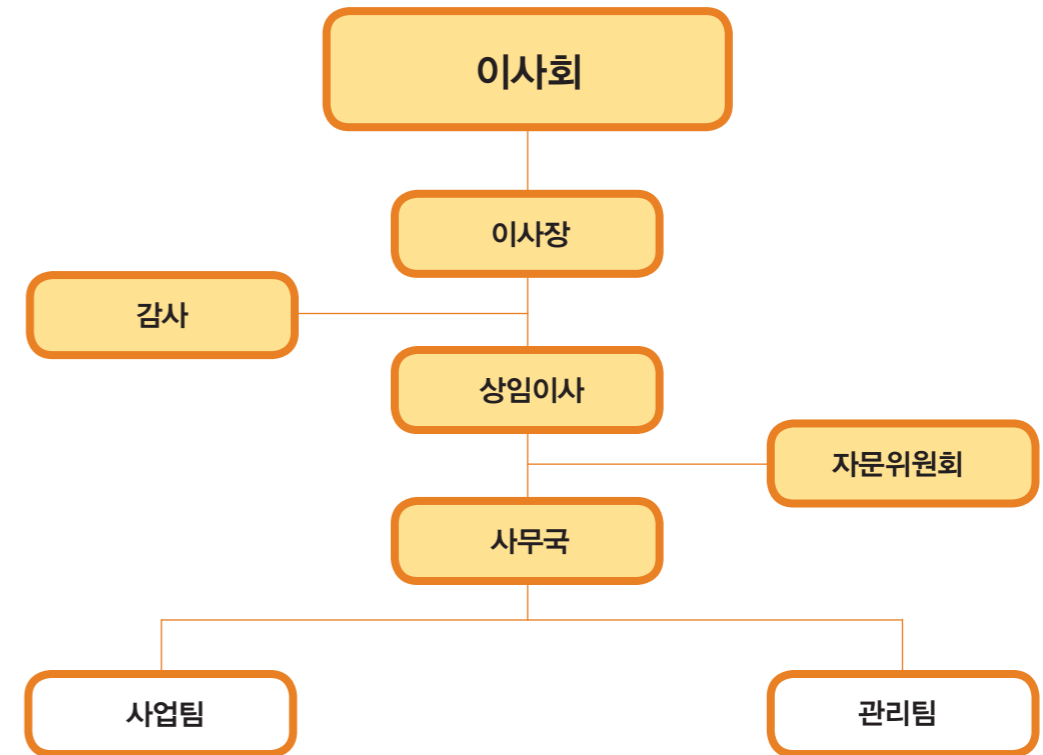
2009

03~10월	목적사업 공고·접수 -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자살예방 지원사업,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 저출산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
04월	제1회 생명보험 의인상 공고
05월	사회적익인 지원사업 : 소방방재청 부문 지원
06월	사회공헌파트너십 약정체결 -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 자살예방 지원사업
08-09월	재산 출연
09월	사회공헌파트너십 약정체결 - 저출산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
12월	사회적익인 지원사업 : 경찰청 부문 지원

2010

08월	재산 출연
10월	출산양육지원사업 협약 사회적익인 지원사업(소방방재청 부문, 일반인 부문)

조직도 ● Organization Chart



이사장	이시형	세로토닌 문화 박사
이 사	진 념	삼정KPMG 고문, 전북대학교 초빙교수
	박진근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조 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봉주	경희대 경영대학교수
	진영채	생보부동산신탁 경영지원실장
감 사	정봉은	당 재단 상임이사(상무)
	강성원	삼정회계법인 부회장
	양승우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장

주요사업 ● Business Review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생명의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의료비지원	-치료비, 재활치료비, 특수치료제 및 보장구 등
회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회귀질환센터 지원	-특수치료 및 재활센터 설치·운영
	인식확산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캠페인, 콘텐츠 개발 및 제작 등
	연구지원	-회귀·난치성질환의 기초 및 임상, 예방 및 조기발견, 유전자 규명 연구 등
자살예방 지원사업	복지지원	-자살 고위험군 대상의 상담 및 교육, 자활 관련 사업 -자살시도자 및 가족 대상 교육, 상담 등 복지프로그램 사업 -생명존중 프로그램 보급 관련 사업 -기타 위기개입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사업
	인식확산	-자살에 대한 편견해소 및 생명존중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성 사업
	연구지원	-자살예방을 위한 역학조사 및 연구에 대한 지원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	복지지원	-치매노인 케어를 위한 교육 사업 -치매노인 및 가족 대상 복지, 재활 프로그램 -재가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인식확산	-치매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캠페인 사업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교재, 제작·배포 사업
	연구지원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에 관한 연구 -치매환자 및 가족 대상 재활, 교육프로그램 개발
저출산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	의료비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임신 예방교육
	복지지원	-저소득층 대상 산전·후 관리 및 보호 교육 -미숙아 예방을 위한 교재 개발, 보급 -미숙아 발달장애 예방을 위한 조기진단
	인식확산	-혼인·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교재 개발, 보급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및 유·사산 예방 캠페인
사회적익인 지원사업	일반익인 부문	-'생명존중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지원
	경찰관·소방관 부문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경찰,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을 지원

출연사 ● Donation Company

총 출연기금 44,249,011,720 원
('08~'10년 기준 누계)

출연사	금액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31,026,512,764 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9,489,994,191 원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905,501,000 원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840,678,923 원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595,762,842 원
AIA생명보험주식회사	238,000,000 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221,362,000 원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218,553,000 원
KDB생명보험주식회사	178,967,000 원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150,052,954 원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136,495,000 원
ING생명보험주식회사	100,000,000 원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80,164,000 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58,620,000 원
카디프생명보험주식회사	5,927,046 원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식회사	2,421,000 원

재단설립 ● Foundation Founding

재단설립 배경

근대화가 시작된 이래,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해 온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적 공동체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던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된 이른바 정보화 혁명이 가져온 엄청난 변화는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정보가 모든 인간적 가치관에 우선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변화로 인해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비인간화, 생명 경시 풍조, 환경오염, 세대 갈등, 빈부 격차 등의 부작용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난 생명경시, 노인문제, 소외 문제는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과 개입 없이는 해소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상당수는 관련 약품 부족, 사회적 편견 등으로 경제적인 어

창립 기념 현판식



려움을 겪고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54.5%가 월평균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나타났고, 11%가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고 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 역시 그 원인이 사회적 측면과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예방책 또한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명존중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의 추세라면 2018년에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14.3%,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노인 문제에 대한 제도적·사회적 장치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노인에게 발병되기 쉬운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열악하다. 치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깃뺏아 개인과 가족의 황폐화를 가져온다. 정부·민간단체·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치매노인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로 빚어질 사회적 위기와 생명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꾸준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우선적인 과제가 되었다.

이미 탄생한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미숙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역시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35세 이상의 고령산모 증가와 산모의 영양상태, 감염 및 약물남용 등으로 해마다 미숙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숙아 치료에 부담을 느끼는 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련 치료 시설 및 의료재 확충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 공동체 또는 타인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살신성인의 마음과 용기를 발휘한 의인을 사회적 차원에서 발굴하고 격려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사회적인 의인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은 생명존중·생명사랑의 정신과 공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다.

최근 사회로부터 얻은 부를 다시 사회에 되돌려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사회 문제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또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가진 민간단체는 거의 없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경쟁 상대인 기업들이 공동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취지로 자율협약을 체결해 공동 펀드를 조성하고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방식은 국내외적으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3의 사회공헌 모델’로 혁신적 사례로 꼽힌다.”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평가하고 있다. 언론 역시 “생명보험업계의 공동 사회공

1. 창립 기념사를 하고 있는 이시형 재단 이사장
2. 창립 기념 축하 참석자들



현활동은 업계 전체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특정 회사가 아닌 생명보험산업 전체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한다는 데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라고 보도하였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달성함으로써 생명보험의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까지 이끌어냄으로써 생명보험업계의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재단설립 과정

생명보험업계는 오래전부터 공동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1992년부터 생명보험협회 주관으로 전체 생명보험사가 시급한 지원을 해야 하는 저소득층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곳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한 공동 공익사업이 대표적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전국 90개 아동복지시설을 후원해 화장실 개조, 차량구매 등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우청소년과 시설생활 아동의 학자금과 사

회정착금 보조를 위해 '소년·소녀가장 장학보험'을 개발해 지원하고, 청각장애인이 TV를 볼 수 있도록 TV 자막수신기를 기증한 바 있다. 2000년부터는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힘든 노인과 중증장애인들이 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목욕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한 이동목욕차를 기증하는 사업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생명보험업계는 공동 사회공헌사업의 본격적인 수행을 위해 그동안 꾸준한 협의를 해왔으며, 2007년 4월 '생명보험산업의 건전한 문화 정착 및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기'로 공표하였고, 이후 전문적·체계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재단 설립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생명보험회사들이 공동 출연하는 공익재단의 설립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 정한 순수한 자선 관련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국가공동체의 복지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2007년 5월부터는 생명보험회사들의 의견수렴 작업에 들어가 합의를 이끌어냈고, 10월 본격적인 공동 공익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후 11월 20일에는 생명보험협회와 대한민국에서 생명보험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보험회사 등을 당사자로 한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제정하였다. 이 협약에서 당사자인 각 보험회사는 사회공헌사업을 위해 2007년부터 2026년까지 1조 5,00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출연하기로 하고,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생명보험협회 및 생명보험사들은 2007년 재단설립 발기인 총회를 거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설립을 확정하고,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의하였다.

12월 27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취득해 공식 출범하였다. 재단은 이시형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 원장을 이사장으로, 진념 서정법무법인 고문과 박진근 연세대 명예교수, 김석산 한국복지재단 회장을 이사로, 김대영 대신문화재단 이사를 상임이사로, 강성원 삼성회계법인 부회장과 양승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를 감사로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였다. 아울러 생명보험업계는 사회공헌사업을 총괄하는 '사회공헌위원회'도 구성하였다. 9인으로 구성된 사회공헌위원회는 사회공헌운영주체(재단 및 기금)별 재원의 배분, 기금을 활용한 보험문화 확산 수행 등 생명보험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조정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양승규 세종대학교 총장,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 신수식 고려대 명예교수(전 한국보험신문 회장),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천주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회장, 이일하 굿네이버스 회장과 생명보험업계 대표 3인으로 구성하였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08년 2월 29일 금융감독원 박병명 보험감독국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인 세종대 양승규 총장과 생명보험협회 남궁훈 회장,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시형 이사장을 비롯하여 대한생명 신은철 대표이사, 삼성생명 이수창 대표이사, 흥국생명 김상욱 부사장, 교보생명 신창재 대표이사, 동양생명 박중진 대표이사, 신한생명 서진원 대표이사, 금호생명 최병길 대표이사, 동부생명 조재홍 대표이사, 굿네이버스 이일하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충무로2가 사무실에서 창립 기념행사 및 현판식을 가졌다. 이후 2008년 5월 자살예방 지원사업의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외적 활동을 시작하였다.



1. 창립 기념식 방명록 기재
2. 창립 기념 축사



2008~2010 하이라이트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의료 및 복지 지원을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가족이 미래에 대한 기대와 꿈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이란, 유병률 2만명 이하, 인구 10만명 당 43명 이하로 발생하며 발병원인 및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을 의미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편견극복과 인식개선에 이바지하여 생명보험의 근간이 되는 '생명존중'의 의미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복지사업에 지원함으로써 환자 및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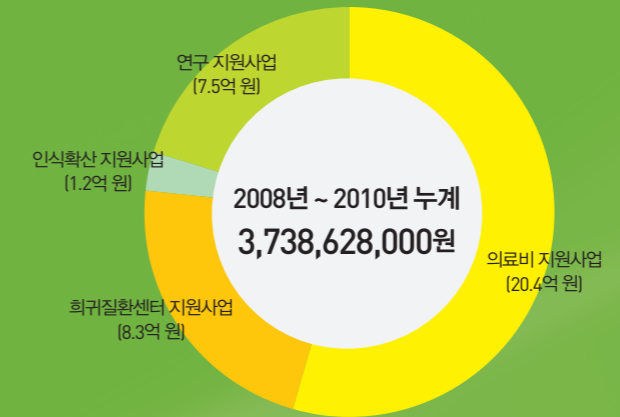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와 가족들이 투병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희귀·난치성질환 환우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비, 희귀질환센터, 인식확산, 연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사업

2008년	176,420,000 원
2009년	1,037,575,000 원
2010년	825,582,000 원
합계	2,039,577,000 원

■ 희귀질환센터 지원사업

2008년	164,942,000 원
2009년	392,317,000 원
2010년	276,896,000 원
합계	834,155,000 원



■ 인식확산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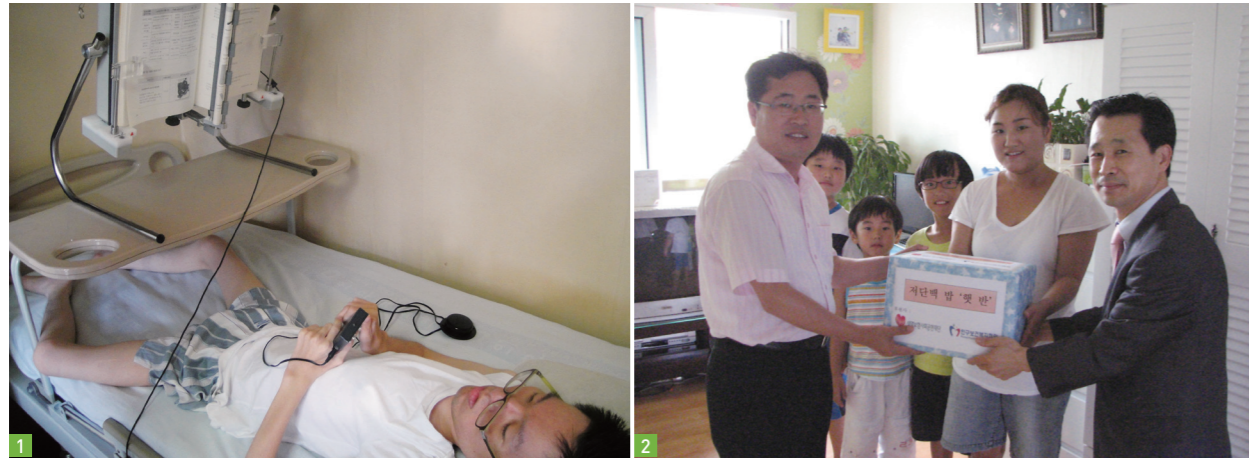
2008년	59,574,000 원
2009년	56,000,000 원
합계	115,574,000 원

■ 연구 지원사업

2008년	308,422,000 원
2009년	239,200,000 원
2010년	201,700,000 원
합계	749,322,000 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소중한 희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1. 한벗재단 특수보조기기 지원
2. 인구보건복지협회 선천성대사질환 환우 저단백 쌀 지원

● 일반치료비 지원사업

사업내용 희귀·난치성질환자 수술비 및 치료비 지원

협력기관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새생명지원센터, 한국희귀질환연맹,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KBS·어린이재단 등 총 11개 기관

●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사업내용 희귀·난치성질환 아동의 신체발달 유지 및 기능향상을 위한 재활치료비 지원

협력기관 성프란치스코 장애인복지관, 에바다 장애인복지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새생명지원센터 등 총 3개 기관

● 특수보조식품 및 특수약품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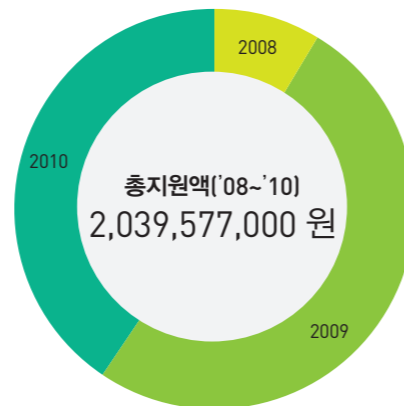
사업내용 선천성대사이상환아, 부신백질이영양증, 수포성표피박리증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특수보조식품 및 의약품, 보조용품 지원

협력기관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총 2개 기관

● 보조기기 지원사업

사업내용 중증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지원

협력기관 한벗재단, 근디스트로피환우보호자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등 총 3개 기관



2008	176,420,000 원
2009	1,037,575,000 원
2010	825,582,000 원

희귀질환센터 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특수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클리닉을 설치하고, 의료·복지·재활·교육을 연계한 One-Stop 통합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1.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유전성대사장애질환 치료센터 개소식
2.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 음악치료 프로그램(김윤옥 여사 방문)

● 특수치료센터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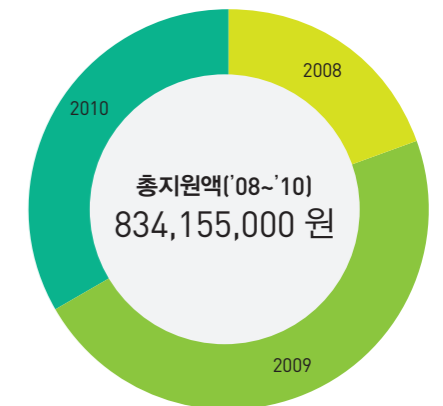
사업내용 호흡재활센터, 유전성대사장애질환 치료센터, 희귀·난치성질환자 통합케어센터 설치·운영

협력기관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전남대학교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등 총 4개 기관

● 전문재활센터 지원사업

사업내용 희귀·난치성질환 아동 복지센터, 의료·복지 재활센터 설치·운영

협력기관 기장장애인복지관, 난치병아동등기운동본부 등 총 2개 기관



2008	164,942,000 원
2009	392,317,000 원
2010	276,896,000 원

인식확산 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범사회적인 관심을 유도하여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와 가족들의 희망을 키워드리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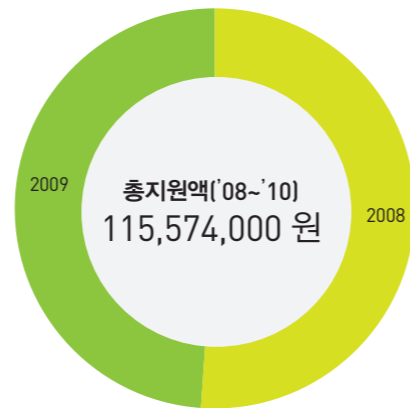
1.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 '근골격계 희귀·난치성질환 바로알기' 책자 발간
2. 한강성심병원 '소아류마티스 바로알기' 책자 발간
3. 한강성심병원 소아류마티스 무지개캠프

홍보캠페인 및 교육 지원사업

사업내용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및 교육사업
협력기관 엔씨스کم, 한국선천성대사질환협회, 한국작은키모임 (LPK),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 총 4개 기관

심리재활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업내용 환자 및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재활프로그램, 건강캠프 지원
협력기관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등 4개 기관



2008 59,574,000 원
2009 56,000,000 원

연구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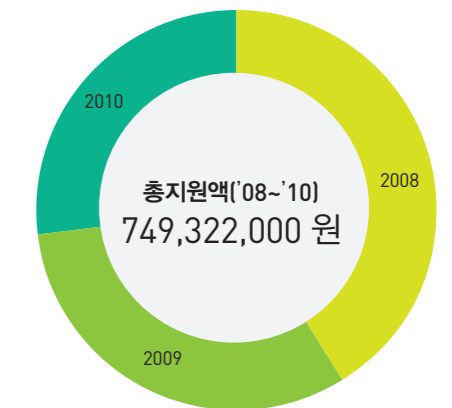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연구지원을 통하여 희귀·난치성질환의 원인규명,
진단 및 치료법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연구비 지원사업

사업내용 샤르코-마리-투스병, 파브리병, 선천성대사질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낭포성섬유증, 프리더윌리증후군 등 희귀질환 원인규명 및 진단법 개발 관련 기초연구
사업수행자 아주대 김철호, 관동대 류현미, 고려대 송해룡, 가천의대 이시훈, 삼성서울병원 진동규 등 20명

1. 제6회 희귀·난치성질환 국제심포지움
2. A survey on the pulmonary rehabilitative management for patients with advanced neuromuscular disease in Korea
3. Epithelial Transport and Cell Signaling



2008 308,422,000 원
2009 239,200,000 원
2010 201,700,000 원

사업별 세부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단체	지원금액
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 등록질환자 메디케어 지원사업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재생명지원센터	300,000
〈사랑의 리퀘스트〉 방송출연 희귀·난치성질환자에 의료비 지원	KBS, 어린이재단	200,000
재생불량빈혈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150,000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강남세브란스병원	145,000
실조증 및 무형성빈혈, 만성신부전 등 신경계 및 내과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125,000
희귀·난치성질환자 특수보조용품 및 식품 지원사업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100,000
치료기술비 지원사업	화순전남대학교병원	100,000
중증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맞춤형조기기 대여 및 지원사업	한빛재단	100,000
신경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촌세브란스병원	100,000
선천성대사이상 환자 특수보조식품(저단백 쌀) 지원사업	인구보건복지협회	100,000
내과계 및 신경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고려대학교구로병원	100,000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들의 발달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성프란치스코장애인복지관	90,000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75,000
희귀·난치성질환 아동의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다시 일어나세요!'	에바다장애인복지관	71,280
투석환자의 합병증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65,577
영세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한국희귀질환연맹	50,000
근이영양증 환자 의료비 지원과 보장구 지원	근디스트로피환우보호사회	50,000
근육병환자 가정에 절실히 필요한 보조기구 지원사업	한국근육장애인협회	50,000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가족의 치료기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재생명지원센터	25,920
소계		1,997,777
희귀·난치성질환센터 운영사업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211,000
희귀·난치성질환 아동 맞춤형 통합케어센터 개소 및 운영	난치병아동동기운동본부	150,000
호흡재활센터 설치·운영	강남세브란스병원	130,400
유전성대사장애질환 치료센터 설치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121,954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전인재활을 위한 의료, 교육, 복지, 통합 프로그램 지원	기장장애인복지관	95,978
희귀·난치성질환자 케어센터 설치·운영	전남대학교병원	93,878
소계		803,210
왜소증 인식개선을 위한 강연회 및 홍보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사업	한국작은키모임_LPK	30,000
인식확산 캠페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	30,000
선천성대사질환에 대한 인식확산 프로젝트 '희망등대' 홍보책자 발간	한국선천성대사질환협회	29,674
소아류마티스 환아와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20,300
소아청소년 당뇨환아와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고려대학교의료원	25,900
혈우병 환자의 집단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지지망 형성과 자조관리 능력향상 프로그램 '물보다 진한 삶 만들기'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6,095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내적 역량 및 가족결속력 강화를 위한 '행복케어 프로젝트'	철산종합사회복지관	4,550
희귀·난치성질환자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엔씨스콕	41,800
소계		188,319

의료비 지원사업 [19건]

희귀질환센터 지원사업 [6건]

인식확산 지원사업 [8건]

단위 : 천원

사업명	단체	지원금액
사람 내 임파당 상피세포의 계대배양을 통한 메니에르병의 모델확립과 증가된 사이토카인이 내임파당의 수분흡수 기능과 청력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철호_아주대학교	60,000
모체혈장 내의 태아 DNA를 이용한 유전적 희귀·난치성질환의 산전진단 기초 연구	류현미_관동대학교	60,000
골연장출시 rhBMP-2 주입이 신생골형성에 미치는 영향	송해룡_고려대학교	50,000
근모세포, 지방유래세포 및 근병증 조직에서 CTRP1의 발현과 근육생성 -분화과정의 비교	최영철_연세대학교	49,700
선천성 희귀 탈모질환의 치료 전략	김성주_가톨릭대학교	45,000
X-연관유전성 난청인 DFN3의 진단법 개발 및 난청 유발기전의 연구	김연경_경북대학교	45,000
파브리병(Fabry disease)에서의 혈관 및 신장 손상에 대한 분자적 기전연구	정성철_이화여자대학교	42,000
선천성대사질환에 대한 신생아 선별검사 양성자의 추적 관리	최태운_순천향대학교	42,000
소아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맞춤형 치료를 위한 치료에 대한 반응 및 예후에 관여하는 유전자 규명	김중곤_서울대학교	30,000
부신피질 자극호르몬 비의존성 양측성 거대결절성 부신과 증식증 환자의 분자발병원인의 규명	이시훈_가천의과대학교	30,000
유전성 출혈성 모세혈관 확장증의 발병 기전에 관한 연구 및 한국인 가계에서의 원인유전자 검사	이영재_가천의과대학교	30,000
선천성 갑상샘 기능저하증 환자에서 유전자 변이 분석과 유전자 변이 선별 진단법 개발	이용화_순천향대학교	30,000
Comelia de Lange 증후군의 원인 유전자 탐색 및 질병 기전연구	이진성_연세대학교	30,000
후생유전적 분석에 의한 신경섬유종증 제 1형의 종양발생 및 악성화 기전 규명	정선용_아주대학교	30,000
프라더 윌리 증후군 소아의 혈중 아디포넥틴과 아디포넥틴 수용체 발현에 관한 연구	진동규_삼성서울병원	30,000
Ewing Sarcoma의 종양 발생 및 전이에 있어 Trk유전자의 역할 규명 : 항암 치료법 개발에의 응용	진 욱_가천의과대학교	30,000
샤르코-마리-투스병에서 미토콘드리아와 연관된 MFN2, DNM2, GDAP1 유전자 분석 및 임상병리학적 특성연구	최병욱_이화여자대학교	30,000
남포성 섬유증(Cystic fibrosis)환자의 기도 점막에서 PGE2에 의한 점액분비기전	최재영_연세대학교	30,000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쥐에서 통증 발생기전 규명 및 진통제 개발을 위한 분자생물학적 및 약리학적 연구: Endothelin과 Cytokines의 역할	윤명하_전남대학교	29,700
희귀·난치성 신경근육계질환자의 호흡부전 관리 실태 조사	강성웅_연세대학교	25,922
소계		749,322
합계		3,738,628

연구 지원사업 [20건]

지원사례

●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 치료비 지원사업

신경근육질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

● **사업 대상** 근육병, 루게릭병, 척수성 근위축증 등 진행성 신경근육질환자

●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희귀·난치성 진행성 신경근육질환'은 근력 약화가 호흡근육 약화와 마비로 이어져 나중엔 인공호흡기에 생명을 의지하게 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다. 하지만 환자관리 지원시스템만 잘 갖춰지면 제한적이지만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환자의 조기 발견과 이송, 체계적 관리, 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호흡재활센터 설치와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

● **주요사업내용 및 수행 실적**

호흡재활센터 및 전용병실 설치

전문적인 호흡재활치료, 전담 사회복지사의 심리사회적 상담, 치료 연계성을 높이는 재가방문간호사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또, 주변 환자들에게 인공호흡기 소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4인용 호흡재활 전용병실을 마련하였다.

호흡재활 전문교육 및 진료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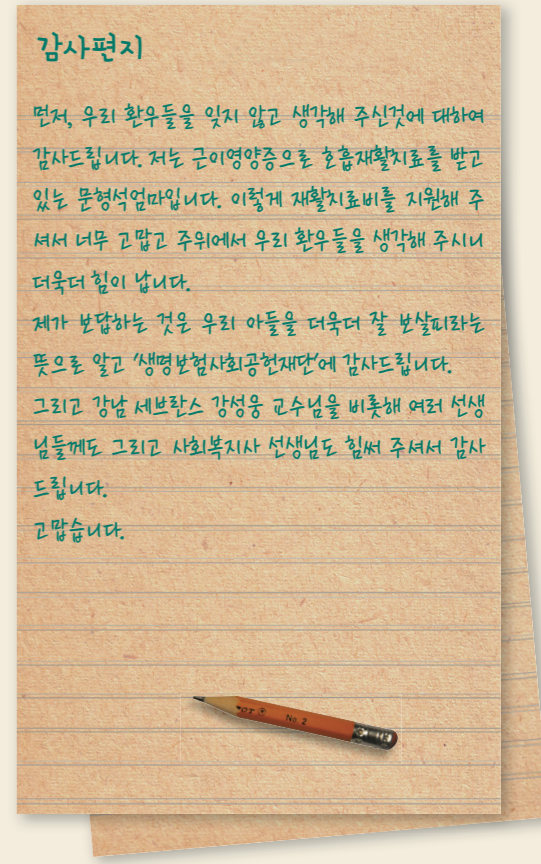
강남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600여 명의 전문 의료인을 대상으로 심포지움을 열어 호흡재활의 저변 확대를 꾀했다. 더불어 근육병 환우회 부산지역 환자 70여 명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호흡관리법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호흡재활 치료비, 위조루관 교체비 등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147명의 치료비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 부차적으로 따르게 되는 6개월~1년 간격의 정기검진비를 지원했다. 또, 합병증인 삼킴장애로 인해 위조루술을 받은 환자가 1년에 1회 하게 되는 위조루관 교체비, 연수근 마비 혹은 기도분비를 제거가 어려워 기관절개술을 받은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를 위한 매월 1회의 기관절개관 교체비를 지원했다.

전문가 평가의견

- 호흡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 상징성 및 홍보 효과가 뛰어나며, 재성의 역할과 목적과도 부합된다.
-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의사와 간호사 등 해당 분야 의료인들에게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 최고의 호흡재활 전문의와 관련 의료진,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팀의 협력 진행으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감사편지

먼저, 우리 환우들을 잊지 않고 생각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근이영양증으로 호흡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문형석입니다. 이렇게 재활치료비를 지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주위에서 우리 환우들을 생각해 주시니 더욱더 힘이 납니다.
제가 보답하는 것은 우리 아들을 더욱더 잘 보살피라는 뜻으로 알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남세브란스 강성웅 교수님을 비롯해 여러 선생님들께도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 개소식
2. 강성웅교수 호흡재활 상담 및 진료
3. 방문간호서비스

지원사례

● 고려대학교 의료원

소아청소년 당뇨병환아와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

생활 속 자가관리능력 향상에 초점맞춘 시도가 참신

● 사업대상 소아청소년 당뇨병(Type1) 환아

●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 2010년 한국소아당뇨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4,069명의 소아청소년 당뇨(Type1)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층에서 발병하는 '2형 당뇨병' 경우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히지만 소아청소년 당뇨는 원인조차 불분명하다.
- 당뇨환아들은 매일 3~4차례 인슐린 주사를 맞고, 5~6차례 혈당 체크를 해야 한다. 비용도 큰 부담을 주지만 매일 치료와 검사, 규칙적인 식습관과 생활습관 등 지켜야 할 부분이 많다. 그런 만큼 환아와 그 가족들에게 올바른 관리 능력을 키워주고, 나아가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의 적응력 향상과 자립을 위한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주요 사업내용 및 수행 실적

환아 행동평가척도 등 특별검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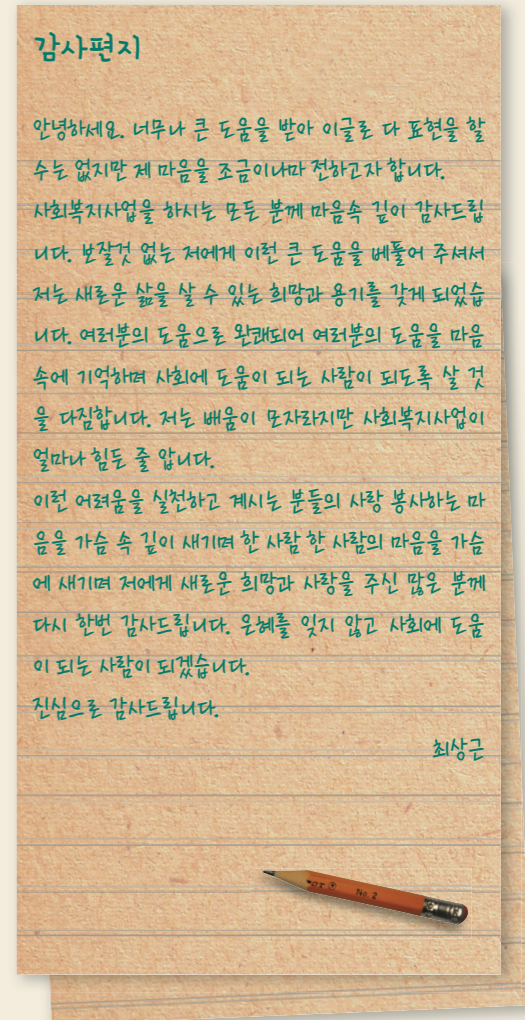
고려대학교의료원에서는 총 115명의 환아에게 K-CBCL(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및 당뇨병합병증 등 특별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당뇨병 환아는 특히 조절(통제)이 잘 되지 않고 행동과 감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환아와 가족이 함께하는 캠프 개최

건강검진과 함께 당뇨환아들을 위한 캠프를 열었다. 총 158명이 참여하여 환아의 건강 및 영양관리 교육, 심리치료, 환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혈당에 대한 자가 관리 등을 익혔으며, 가족들에게는 환아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전문가 평가의견

- 본 사업은 비만으로 인한 당뇨가 아닌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선천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소아당뇨 같은 경우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지만 원활한 학업생활과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환아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고대의료원 내 3개 병원(안암, 안산, 구로)이 연합 진행하고,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 수행팀 역시 전방위적이었다. 특히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사업 대상자의 개선사항을 먼저 파악하는 접근 방식이 돋보인다. 행동평가척도를 도입하고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를 수행하여 성과 측정을 객관화한 시도가 바로 그런 부분이다.



1. 소아청소년 당뇨캠프
2. 소아청소년 당뇨캠프 - 개영식(선서)
3. 소아청소년 당뇨캠프 - 식단 및 영양교육

지원사례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재생불량 빈혈환자 이식 지원사업

경제적 부담 감소를 통한
치료의지 독려

● **사업대상** 만 19세 미만 재생불량빈혈 환자

●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 재생불량빈혈은 골수세포의 기능과 세포충실성(cellularity)이 감소하고 골수조직이 지방으로 대체되면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모두가 감소하는 조혈 기능의 장애를 나타내는 질환이다.
- 해마다 국내에서는 약 46.8명의 아동이 재생불량빈혈 진단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증 재생불량빈혈의 경우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1년 내 사망할 확률이 약 80%에 이른다. 다행인 것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한 생존율이 높다는 점이다.
- 하지만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재생불량빈혈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고액의 이식 치료비 부담은 치료 의지를 저하시켜 치료 포기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재생불량빈혈 환자 대상 이식 지원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 **주요 사업내용 및 수행 실적**

6명의 환아에게 이식치료비 지원

자체적으로 '특별기금 지원사업 운영 방침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대상자 상담, 서류 평가,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6명의 환아에게 40,922,440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였다.

전문가 평가의견

- 재생불량빈혈 환아의 조혈모세포, 제대혈 이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 기획과 수행이 적절해 보인다.
- 소아암어린이쉼터 등 협력기관을 통한 환아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본 사업과의 연계 효과가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 수행기관 산하 시설로 운영되는 각 지역별 쉼터를 사업 효과를 향상시키는 지역 네트워크 자원으로 확보하여, 이를 통해 지원 대상의 지역적 분포에 균형을 기할 수 있었다.
- 사업 수행을 위해 '특별기금 지원사업 운영 방침 및 지원 기준'을 제정하고,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높은 전문성을 보였다.



감사편지

유치원 건강검진으로 처음 듣게 된 재생불량성 빈혈이라
는 병이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하늘이 무너지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하늘이
내린 벌인가 했었지만 우린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
다. 유치원에서 가는 현상학습도, 수영장도 조금이라도 위
험하다 싶은 곳은 절대 내가지 못하게 하고 조심하면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지내려 했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2학
년 겨울방학에 골수이식을 했습니다.
최상의 조건이라 모두 잘 될 거라 생각했지요.
모든 음식은 익혀야 하고 아이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살
균을 거치고 한번 조리한 음식은 4시간을 넘기지 않고 병
원을 자주 다녀야 하는 아이 때문에 광주에서의 생활을
접고 병원 근처로 이사도 했지요. 전 자금을 대줄른 시작
했던 가게는 몇 년 고생한 덕에 그 빚을 다 갚고도 내 명
의 재산도 생겼습니다. 이사하면서 혼자 할 수 없던 가
게 일을 접고 아이 아빠는 일당일을 다녔고 매끼니 조리
해 먹어야 했던 난 아이 곁에 묶여 있어야 했지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1차 이식결과가 좋지 않아 2차 이식을 하
려다 보니 재정 상태는 엉망이었죠. 대딸이 적자인 건 알
았지만 애써 외면하려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우리 힘으로 살자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8년이라는 병치레에 이렇게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
었습니다. 어디 한 곳 기댈 수 없는 저희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번 2차이식은 이제 또다시
4년 전 처음 이식상태로 돌아가지만 일 년 후엔 그 때
아이들과 학교 생활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길만이 도
와주신 분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니깐요. 비록 지금은
도움을 받지만 언젠가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
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키우겠
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길이 길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히 즐겁게 행복하십시오.
김서희 얼마 드림

1. 재생불량 빈혈환자 이식수술 준비
2.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 희귀 난치성질환자 어린이 병실

지원사례

● 한국선천성대사질환협회

선천성대사질환에 대한 인식확산용 홍보지 <희망등대> 발간

환우 가족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



● **사업대상** 환우, 후원자, 병원, 보건소, 관련단체

●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 선천성대사질환은 효소이상 또는 단백질 구조이상 때문에 물질대사가 잘 되지 않아 여러 증세가 나타나는 병이다. 대부분 유전성으로 특히 뇌에 장애가 생기기 쉬우며 간이나 신장 등에도 장애를 일으킨다.
- 조기 발견만이 치명적 손상 및 동반되는 장애를 예방할 수 있으나 관련 정보 제공과 정보 습득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 가족의 희생을 기반으로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 병이란 점에서 환우 가족의 경험적 지식을 활용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 **주요 사업내용 및 수행 실적**

<희망등대> 책자 발간 사업

선천성대사질환 전문가로 발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작 계획을 짜고, 전문의·영양사·특수분유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들에게 원고를 청탁하였다. '희망등대'책자는 선천성대사질환에 대한 전문자료와 환우가족이 질환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소식, 그리고 질환·약관련 의료계 정보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또한, 정부 지원정책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같은 민간기관의 지원에 대해서도 소개하여 선천성대사질환자와 가족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질환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홍보가 목표

선천성대사질환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홍보를 위해 총 12,500부를 인쇄하였으며, 환자 및 관련 의료인 등이 많이 이용하거나 종사하는 종합병원, 보건소, 소아과, 산후조리원 등에 11,870부를 발송하였다.

전문가 평가의견

- 홍보책자의 발행은 선천성대사질환과 관련한 정보와 인식 확산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사업이다.
- 곁에 두고 볼 수 있는 책자란 점에서 선천성대사질환 관련자들에게 정보 교류와 정서적 지지 효과를 줄 수 있다.
- 각 의료기관, 분유업체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였으며, 그 결과 홈페이지 방문자 및 문의 전화, 후원자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도출하였다.



감사편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귀한 책자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픔은 속을 삭일수록 마음의 병이 커지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뿌려주신 이 씨앗들은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서 대사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소아과 의료진들과 영문도 모르는 아이들을 잃은 대사질환 가족들에게, 현재 대사질환 환아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열매를 내뿜 줄 수 있을 겁니다. 그 씨앗들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든든한 결실을 볼 수 있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고맙습니다.

2010년 3월에
이용운 엄마 드림



1. 한국선천성대사질환협회 웃음치료
2. 선천성대사질환 환우와 가족을 위한 여름가족캠프
3. 걱정말고 밥먹기 프로젝트 지원식

인터뷰

‘관심이 희망이죠’

호흡재활치료로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돕는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
강성웅 교수

인공호흡기를 쓰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대개 인생의 끝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건 일반인들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며,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는 의사가 있다. 근육병, 루게릭병, 척수성 근위축증 등 몸을 가누기 힘든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을 치료하는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 강성웅 교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호흡재활센터 강성웅 교수

호흡재활 치료법을 국내최초 도입,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희망을 줘

일반인들에겐 다소 낯선 ‘호흡재활’은 호흡에 장애를 일으키는 모든 증상들을 완화시켜 호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를 말한다. 척수성 근위축증, 근육병, 루게릭 등의 신경 근육계 질환이나 폐쇄성 폐질환 또는 사고 등으로 척수 신경이 마비되어 호흡근관을 겪게 되는 환자들이 치료대상이다.

그는 어릴때 주변에 장애인을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의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재활의학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는 국내에 재활의학과가 없었던 때. 강 교수는 1989년 강남세브란스병원(구

영동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로 근무하면서 본격적으로 중증 장애인을 돕는 의사의 길을 걷게 된다. 그리고 1999년 미국 뉴저지대에서 연수를 마친 뒤 귀국한 그는 기도 절개 없이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는 호흡재활 치료법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난치병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생명을 지키게 된 것이다.

호흡재활치료는 생명을 살리는 일

그는 호흡재활치료를 두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 환자들은 다른 응급질환의 경우처럼 수술이나 다른 치료 등으로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다. 요즘은 암도 치료가 가능한 시대라고 말한다. 의사는 힘든 수술이 되더라도 수술 후에 완치되어 나가는 환자의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 마디면, 힘들었던 걸 잊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 내과 질환도 새로운 치료제나 시술로 위급했던 환자 상태가 급반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호흡재활치료를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는 아직은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어서 병의 진행을 늦추고, 악화를 막기 위해 10년, 20년 장기간 꾸준한 치료를 요한다. 때문에 다른 전공의 의사들처럼 빠른 치료성이나 보람을 맛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직자 같은 마음으로 이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다. ‘근육병이나 루게릭 같은 신경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 환자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깊이 있게 환자들의 상황을 느끼고, 아는 의사들이 많지 않아요. 나는 우연찮게 이런 환자들을 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치료를 위해 노력하면서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아마 다른 의사들도 이런 환자들을 장기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그들의 심리상태를 듣고, 느끼게 되면 그들을 시한부로 단정하고 포기할 수 없을 거예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같은 민간단체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는 정부에 등록된 수만 1,300명 정도. 정부에 등록이 안 된 환자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1,500~2,000여 명 정도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이들의 치료를 위해 호흡기 기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액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에만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병원까지의 이동비와 간병비 등의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으로 현재 호흡재활치료 대상 환자의 1/3 정도가 정기검진, 응급장애훈련 등에 도움을 받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과 강 교수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병원을 찾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 직접 가정까지 찾아가서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들 중에는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환자들도 있는데 이런 환자들을 병원으로 데려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을 받아 치료한다. 강 교수는 이런 도움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 같다고 말하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같은 민간단체의 지원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강 교수의 앞으로의 바람 역시도 환자들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처럼 도움을 주는 기관이나 기부처가 많아져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무료 간병까지 지원되길 바란다. 그리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도움으로 가능했던 가정방문치료를 더 많이 하기 위해 의료진과 재정을 늘리고, 장애인 시설에 촉탁의 개념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여 환자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의 추가 지원을 가능케 하는 게 현재의 남은 과제라고 전했다.

인터뷰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는 최진호 군의 어머니 임복순씨를 만나다.

아침 8시, 어머니가 진호를 깨운다.
진호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한다.
그런 진호를 일으켜 세워서 등교준비를 시킨 지도 벌써 10년째.
고등학교 2학년인 진호는 근육을 점점 못쓰게 되는 ‘근이영양증’이라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다.
이들 모자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주최한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청계천 걷기대회’ 현장에서 만났다.

진호 군은 10년째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다고 들었어요.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진호는 8살 때 처음으로 증상을 앓았어요. 10년 정도 됐는데, 더 나아지진 않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재활치료를 통해서 굳어가는 것을 풀어주는 게 최선이에요. 지금 18살인데 누구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주로 휠체어에 의지해서 생활해요. 전동 휠체어에 앉혀두고, 손가락을 올려주면 그걸 누를 수는 있는 정도예요.

발병한지 10년이면 그동안 치료비도 부담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한 명은 애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라 진호 아빠 혼자서 벌고 있으니 아무래도 힘들죠. 희귀·난치성질환이라고 해서 병원비가 다 지원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에게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건 진호도 안돼요. 그래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등록이 되면 병원비의 10%만 내면 되는데, 합병증이나 다른 곳이 아프면 보험적용이 안되고요. 한 달에 병원비가 평균 30만 원 정도 드는데, 검사가 있을 때는 50~60만 원 정도 들어요. 저 외에도 이런 희귀·난치성질환을 앓는 환자가 있는 경우라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거예요.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는 최진호군의 어머니 임복순씨



비슷한 희귀·난치성질환을 앓는

분들과의 모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직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을 위한 모임이나 단체가 많지가 않아요. 저희는 ‘근보회’라고 근이영양증 환우 보호자 모임에 참석하고 있어요. 총 회원이 300명 정도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며 서로의 얘기를 나누죠.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니 모임 자체가 위로가 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차가 없어서 진호와 다닐 때도 전철을 이용해서 다니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엔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럼 어느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 이용이 되는지 뭐 이런 정보도 알 수 있거든요. 또 어느 재단에서 어떤 후원을 해 주는지 등의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도 근보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민간 기관이나 단체 같은 곳에서

지원이나 도움을 받고 계신가요?

진호의 경우 지난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전동침대를 지원받았어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호의 경우 마침 전동침대가 필요했던 때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돼요. 움직임이 힘들다보니 누워서 생활할 때가 많은데 그때 컴퓨터나 TV 등을 장착할 수 있어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주최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날 기념청계천 걷기대회에 참석하셨는데요. 참석해 보시니 어떠셨어요?

이런 행사가 있지 않으면 우린 사실 바깥 외출도 어려운 형

편이에요. 이런 행사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일 년에 한두 번만 행사가 있어도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같은 단체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이런 행사를 통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함께 의지하면서 어려움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재단이 그런 부분을 도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병원비 부담도 덜어줬으면 좋겠어요.

진호가 내년엔 고3이 되면 졸업도 멀지 않았네요.

앞으로 진호의 진로나 꿈은 뭔가요?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다보니 컴퓨터를 주로 많이 해요. 그림 그리기도 좋아하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혼자서 익히다 보니 아직 실력이 많이 모자라죠. 전문가에게 배우길 원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가르쳐 줘야 되니 딱히 배울 데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도움의 손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진호와 어머니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완치가 되는 약이 개발되리란 희망으로 살고 있다. ‘나도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세월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이들을 위해 하루 빨리 좋은 약이 개발되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하는 진호의 꿈이 어서 빨리 나라를 펼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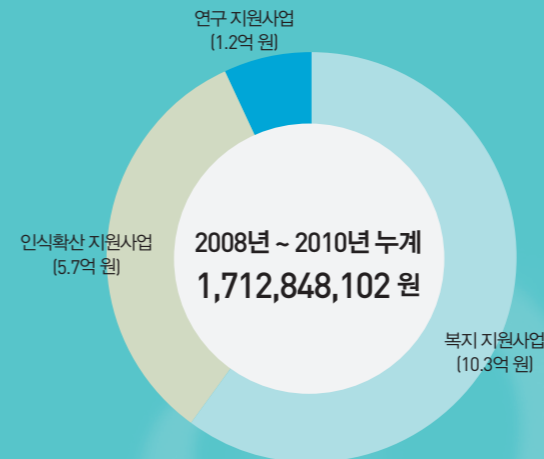
자살예방 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생명존중 생명사랑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청소년 자살예방 연극단의 운영 및 독거노인 말벗 되어주기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보급하였으며, '생명사랑 밤길걷기', '생명사랑 문화대축제' 등 캠페인을 전개하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인식을 확산하고, 또한 자살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기도자에 대한 전국 단위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지원사업은 총 3개의 사업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복지지원 사업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교육 등 위기개입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합니다. 둘째, 인식확산 사업입니다. 인식확산 사업은 자살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여 자살고위험군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인식을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셋째, 연구지원 사업입니다. 연구지원 사업은 전문연구자·연구기관·기타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역학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복지 지원사업	
2008년	233,655,400 원
2009년	525,895,900 원
2010년	269,497,000 원
합계	1,029,048,300 원



■ 인식확산 지원사업	
2008년	458,000,000 원
2009년	54,000,000 원
2010년	54,000,000 원
합계	566,000,000 원

■ 연구 지원사업	
2008년	8,000,000 원
2009년	106,000,000 원
2010년	3,799,802 원
합계	117,799,802 원

복지 지원사업

자살예방 상담기관들의 상담인프라 및 상담인력 교육지원을 통해 자살예방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자살을 감소를 도모합니다.



1. 자살예방전문가 (Gate Keeper) 양성교육
2. 자살예방연극 '어린 생쥐의 비명'

● 상담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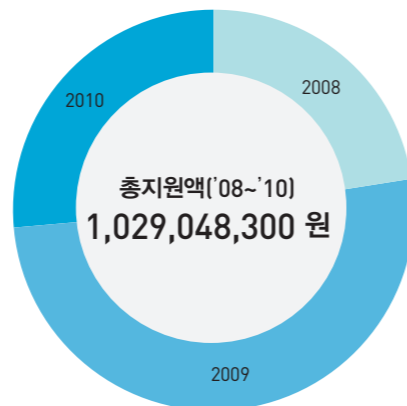
사업내용 자살예방 Hot-Line 운영지원, 자살예방(상담)전문가 양성지원, 정신건강 위기상담 홈페이지 구축
협력기관 한국생명의전화, 한국자살예방협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 등 총 12개 기관

● 자살예방 프로그램 지원

사업내용 농촌지역 농약관리 프로그램 지원, 노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자살예방 연극 프로그램 지원, 자살 유가족 프로그램 지원 등
협력기관 한국생명의전화, 한국자살예방협회,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21개 기관

● 자살예방 교육교재 개발·보급

사업내용 군 자살예방 교관화 교육 지원, 노인 및 초등학교 자살 예방 시청각교재 개발 지원 등
협력기관 국방부,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등 총 4개 기관



2008 233,655,400 원
2009 525,895,900 원
2010 269,497,00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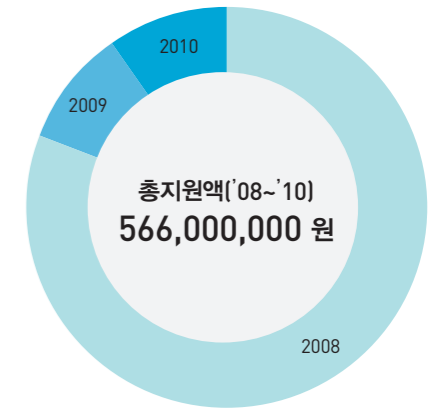
인식확산 지원사업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통하여 자살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자살예방 학술대회 지원, 생명존중 대국민 캠페인(밤길 걷기대회) 지원, 생명존중 문화대축제 지원 등
협력기관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생명의전화, 광주남구정신보건센터 등 총 3개 기관



생명사랑 밤길걷기대회



총지원액('08~'10)
566,000,00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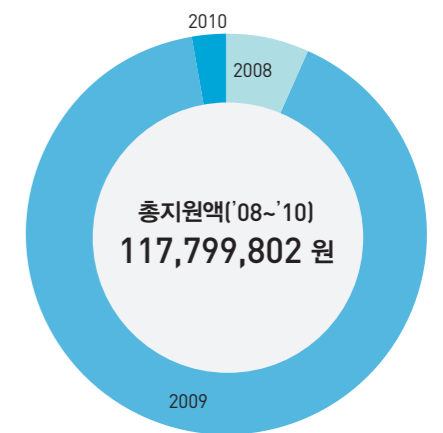
2008 458,000,000 원
2009 54,000,000 원
2010 54,000,000 원

연구 지원사업

자살예방을 위한 역학조사 및 연구에 대한 지원으로 자살의 사회경제적 원인 규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기도자들의 자살원인 연구, 강원도 태백지역의 자살생존자들에 대한 심리부검과 사후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협력기관 한국자살예방협회, 하상훈 등 총 2개 기관(명)

강원도 태백시의 자살생존자에 대한 심리부검 연구발표



총지원액('08~'10)
117,799,802 원

2008 8,000,000 원
2009 106,000,000 원
2010 3,799,802 원

사업별 세부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단체	지원금액
군 내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교관화 교육	국방부	199,968
Hot-line을 통한 자살예방 One-Stop 서비스	한국생명의전화	50,000
청소년 희망(HOPE)지원단: 상담채널 및 운영지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50,000
자살예방 관련 상담채널 발굴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무료 전국 순회공연	극단 '버섯'	30,000
청소년의 생명존중의식 함양 및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내 생명 소중한게 가구기'	한국생명의전화	30,000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 및 교재 개발	한국자살예방협회	30,000
자살위기자 및 자살유가족 지원사업	한국생명의전화	30,000
희망씨앗 나누기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프로그램 보급사업)	광주동구정신보건센터	28,505
생명존중 생명사랑 - 해피 경상남도	경남자살예방협회	28,010
생명지킴이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송파/강동정신보건센터	28,000
재가노인을 위한 생명돌보미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	25,200
사회적 지지기반 형성을 통한 저소득 독거노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능인종합사회복지관	25,000
희망나눔 : '날개옷을 되찾은 선녀' 노인자살예방교육 시청각 교재 개발, 보급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20,000
초등학생을 위한 자살예방 시청각 교재 개발, 보급	한국자살예방협회	20,000
청소년 희망(HOPE)지원단 : 특성화 교재 개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00
청소년 희망(HOPE)지원단 : 케어프로그램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00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노인자살예방 통합지원 프로그램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20,000
지역사회 노인자살예방과 해결을 위한 지역거점의 노인자살예방센터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20,000
정신건강 위기상담 홈페이지를 통한 자살예방 컨소시엄 구축	경기광역정신보건센터	20,000
적극적 농약관리를 통한 농촌형 자살예방사업	경기광역정신보건센터	20,000
저소득 독거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도란도란'	부산남구종합복지관	20,000
자살예방 전문가 심화과정 개발	한국자살예방협회	20,000
자살생존자 돌봄 사업	한국생명의전화	20,000
자살고위험군 선별과 예방 프로그램 [말이 고른 사람들을 위한 Tel-check/Tel-help 사업]	부산북구정신보건센터	20,000

복지 지원사업 [40건]

단위 : 천원

사업명	단체	지원금액
응급의료센터 내원 자살시도자 자살예방 프로그램	서울시자살예방센터	20,000
대한민국 꿈나무 생명지킴이 프로젝트	한국생명의전화	20,000
노인의 자살생각을 감소를 위한 노인생명지킴 프로젝트	전라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19,930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 네트워크 구축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일산종합사회복지관	18,130
2008 찾아가는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경남자살예방협회	18,000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Gate-keeper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하남시정신보건센터	16,000
자살예방 전문상담 인력양성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 프로그램 'SALJA'	대구생명의전화	16,000
자살예방 상담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사직종합사회복지관	16,000
자살 고위험군 노인 상담전문가 양성 및 파견 프로그램 '노인생명 보듬이'	능인종합사회복지관	16,000
맑고 밝은 희망찬 청소년 만들기	춘천알코올상담센터	16,000
교정기관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자살예방 전문상담가 교육(AIR Training)	부산생명의전화	15,600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프로젝트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15,170
청소년 자살예방에 대한 통합적 접근(학생-학부모-교사교육)프로그램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일산종합사회복지관	9,788
청소년 생명 지킴이 'Life saver'	충주시정신보건센터	8,550
자살예방 홍보사업 '원소 너!'	부송종합사회복지관	7,300
한국형 자살예방 표준화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자문회의	기타	1,897
소계		1,029,048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한 대국민 참여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걷기 대회'	한국생명의전화	240,000
온 국민과 함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정착을 위한 대축제	한국자살예방협회	210,000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활용한 청소년 생명사랑 사업	광주남구정신보건센터	116,000
소계		566,000
응급실 내원 자살기도자의 자살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자살예방협회	100,000
강원도 태백시에서 생존자들에게 대한 심리부검과 사후예방 프로그램 연구	하상훈	17,800
소계		117,800
합계		1,712,848

복지 지원사업 [40건]

인식확산 지원사업 [3건]

연구 지원사업 [2건]

지원사례

● 경남자살예방협회

찾아가는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생명존중 일깨우는 교육과
상담으로 자살자수 감소

● 사업대상 경상남도 내 중·고등학생

●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 15~25세 연령대는 자살이 사망원인의 1,2위를 차지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안타까운 것은 총동적인 모방자살, 성적비관, 가정불화 등 주위에서 좀더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원인으로 자살을 한다는 점이다.
- 청소년의 경우, 좌절경험 등을 건디는 자아가 약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충동적이며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하므로 이 연령대의 특성을 감안한 자살예방대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 주요 사업내용 및 수행 실적

찾아가는 자살예방교육

경상남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창원, 김해 지역 28개 중·고등학교(청소년 22,926명)에 13명의 청소년 자살예방전문가를 파견하여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경상남도내 학생 자살자수 감소('07년: 14명→'08년: 1명)와 청소년들의 생명존중정신을 함양시키는데 이바지했다.

자살예방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리플렛 및 CD)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자살예방교육 리플렛 20,000부를 제작하고 자살예방교육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였으며, 생명존중정신 함양 및 위기상담기법 등이 수록된 자살예방교육 CD 500개를 제작하여 찾아가는 자살예방교육의 시청각자료로 활용하고 지역 사회 내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관련단체에 무상으로 배포했다.

청소년 자살예방 상담전문가 워크샵 개최

청소년 자살예방 상담원 역량강화를 위해 자살예방전문가 및 상담원 60명이 참가한 가운데 워크샵을 개최했다.

전문가 평가의견

-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CD제작, 인터넷 활용(인터넷 상담) 등 자살문제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인식개선을 할 수 있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파급효과를 제고하였다.
- 본 단체의 노하우와 인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했다.
- 청소년의 자살율이 감소하는 구체적인 성과('07년: 14명→'08년: 1명)를 거둬오면서 지역 사회 청소년 자살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감사편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귀하

국민의 생명존중 정신함양과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2008년 ~ 2010년 까지 3년 동안 우리 경남자살예방협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남종합사회복지관 경남자살예방협회는 2005년 2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최초로 생명존중 정신함양, 생명사랑 문화 조성, 자살예방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설립 이후 그동안 자살예방상담실운영, 자살시도생존자상담, 자살예방상담원양성 등 상담사업, 찾아가는청소년생명존중교육, 자살예방게이트키퍼양성교육, 상담원역량강화교육, 학부모자살예방교육, 정신보건센터 등 관련기관중사자교육, 군부대 및 전경부대 교육 등 교육사업, 세계자살예방의날기념캠페인, 자살예방안내리플렛 제작, 배부 등 자살인식개선사업,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교육청, 마산고도소, 정신보건센터 등 관련기관연계사업 등을 활발히 수행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 전국 자살자 수는 15,413명으로 2008년도 12,858명여 비해 19.9% 증가 하였으나, 경상남도는 자살자수가 2009년 1,020명으로 2008년 927명여 비해 10.0% 증가하여 전국 증가율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반밖에 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최근 3년간(2007년~2009년) 사망률(인구십만명당)을 비교 해 봐도 경상남도 자살자 사망률은 전국 사망률에 비해 문화 현상을 보이는 괄목한 성과를 거두어, 경상남도 자살률이 전국 16개 광역시도중 2007년도에는 5위 였으나, 2009년도에는 8위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경남자살예방협회는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국 의 복지관, 정신보건센터, 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벤치마킹 대상 기관이 되고 있으며 자살예방사업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에서 가장 앞서가는 민간 선진 기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오늘도 자살 예방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자살예방협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 해 주신 귀 기관의 재정지원, 실무자의 관심과 지도편달 등 남다른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사를 드리며 귀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남자살예방협회 드림

1. 찾아가는 청소년 생명존중교육
2. 생명존중 생명사랑 거리 캠페인(1)
3. 생명존중 생명사랑 거리 캠페인(2)

지원사례

● 익산시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자살예방 홍보사업 청소년 연극단 「완전 소중한 너」

상처받기 쉬운 청소년을
직접 참여시켜 자존감 향상

● 사업대상 지역 사회 청소년 및 주민

●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율이 1위이며, 특히 청소년의 자살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그 심각성이 매우 높다.
- 하지만 청소년 자살에 대한 연구 또는 예방활동과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 따라서 효과적인 접근방법으로 연극이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생명존중의식을 고취시켜 자살예방을 도모하고자 한다.

● 주요 사업내용 및 수행 실적

자살예방 청소년 연극단 창단 및 공연

우울증 선별검사를 통해 자살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선정하고 연극단을 창단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주제의 연극을 2회 공연했다.

(연극명: 어린생쥐의 비명, 우리들의 세상)

자살예방교육

복지관이 소재한 전북 익산지역의 영구임대 주택단지내 지역주민 및 청소년 68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전문가 평가의견

- 사업대상인 청소년을 자살예방의 수행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살위험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자살이라는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다.
- 참여 청소년들의 소감문 등을 통해 볼 때, 생명윤리의식에 관한 실제적인 인식변화가 있었다. 또한 청소년 특성에 맞는 연극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비용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강점이었다.



감사편지

처음 이 연극단에 대해 알게 된 때는 1년 전이었다. 담당 선생님의 권유와 그때 당시 정말 아끼는 동생이 자살에 대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참여한다고 말을 했다. 처음 창단식에서는 아는 얼굴도 없고, 그때의 내 성격도 소심하셔서 적응을 못 할 것 같았다.

-중략-

내가 그 캐릭터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할 때 어색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 했던 것이다. 그리고 평소에 감정 표현도 하고 해야 하는데 항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남의 기분과 눈치를 보면서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살아왔던 것 같다. 연극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지내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게 남아있다. 공연 발표를 앞두고 시간만 내면 모아서 연극 연습을 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연습이 필요했던 나와 아영이는 구박을 밥 먹듯이 먹어야 겨우 연습했다. 드디어 공연 당일 무대 뒤에서 점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서서히 무대 불이 꺼지고 막상 공연이 시작되자 캐릭터에 몰입되어 어떻게 내가 연기를 했는지 기억이 남지 않았다. 공연이 끝나고 후련하고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후회도 했다. 하지만 이 '완소너' 연극단 활동은 내게 좋은 것들을 많이 남겨 주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맥도 좀 더 넓어지고 자살로 고민하는 아이들에게는 관심과 애정을 달아야 한다는 가르침도 얻었다. 그리고 우유부단하고 소심했던 나를 자기 자신의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아이로 바꾸어 주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것을 일깨워준 완소너 연극단이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이수영 진경여고 2학년

1. 청소년 연극단 '완전 소중한 너' 창단식
2.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자살예방 캠페인
3. 자살예방연극 - 우리들 세상

지원사례

●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프로젝트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인 노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었다.

- **사업대상** 전북 익산시 거주 만 60세 이상의 자살위험이 높은 노인
-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 2008년 익산지역 저소득 독거노인 1,177명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관한 조사결과, 자살생각이 있는 독거노인은 107명이었고, 이 중 자살충동을 통제할 수 없다고 응답한 노인은 96명이었으며, 실제 자살시도욕구가 있는 독거노인은 70명으로 나타났다.
 - 이들 노인 중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계획한 노인은 62명이었고, 실제 자살을 확인하고 행동으로 옮긴 노인은 4명으로 나타나 노인에 대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 **주요 사업내용 및 수행 실적**

방문 및 전화상담, 치료 프로그램 제공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자살생각 및 우울감의 정도를 검사하여 프로그램 대상자 11명을 선정하여 자원봉사자가 대상자 가정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생활교육, 건강교육을 720회 실시했고, 노인 전문상담봉사단을 통한 전화상담 947회를 통해 건강 및 정서상태를 확인하였다. 또한 노인들의 긍정적인 정서함양을 위해 원예치료, 아로마치로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응급지원 및 경제적지원

사업대상 노인 중, 자살고위험군 어르신에게 정신과 의료비를 긴급 지원하였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가정에 급식 식재료를 지원했다.

자살예방교육 및 캠페인

지역 내 노인대학 등에서 1,668명에게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거리 캠페인을 통해 홍보지 및 리플렛 4,000부와 포스터 500부를 배포하였다. 본 자살예방 프로그램(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응급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노인자살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자살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전문가 평가의견

- 본 기관은 노인자살 1위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관련사업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 이를 바탕으로 자살예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합적 관점에서 제공하려 한 것이 강점이다.
- 지역사회의 노인자살에 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사업의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부분이 높이 평가된다.



감사편지

기다려지는 목요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지사 선생님이 종이접기를 한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막상 나와보니 원예프로그램
 짬을 해서 너무 재미있고 기다려졌어요. 자살하신 선
 생님과 서론 초면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정다운이
 있어 가까워지는 감을 느꼈고요. 또한 처음에 복지사
 선생님의 우울증을 말씀 하셨으나 그런 생각은 간곳
 없고 막 정을 붙이려 했으나 작별을 하니 너무 아쉬워
 섭섭합니다.
 그간의 관심과 정성에 감사합니다.
 2009년 5월 21일 이정원

항상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외로웠었는데 이렇게 모
 여서 애기도 하고 꽃꽂이도 해보는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처럼 즐겁게 보낸 날은 저녁에 잠도 잘오고 또 다
 시 나갈날을 기다렸었는데 오늘 끝났다 생각하니 서
 운합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 일이
 그저 고맙고 감사합니다.
 김정례



1. 노인자살예방 세미나
 2. 익산시 지역주민 자살예방 교육
 3. 자살예방전문가(Gate Keeper) 간담회

인터뷰

자살예방! 한 통화의 전화로 생명을 구한다.

한국생명의전화 하상훈 원장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 끝에 새벽이 온다고 했던가.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건 단 한 통화의 전화가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기도 한다. '도움은 전화처럼 가까운 곳에 있다는 한국 최초의 전화상담 기관, 한국생명의전화 하상훈 원장을 만나봤다.'



한국생명의전화 하상훈 원장



한국생명의전화 상담사들

자원봉사가 인연이 되어

한국생명의전화와 하상훈 원장의 인연은 대학시절 심리학을 전공하고, 박사 과정으로 상담 쪽을 공부하던 그가 78년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부터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 일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스텝으로 함께 일하면서 이곳과의 인연을 이어가게 된 것이다.

‘한국생명의전화는 현재 18개 도시에 19개 센터가 운영되며, 24시간 자살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고 돕고 있어요. 위기에 처한 사람들, 여러 가지 삶의 갈등과 고민, 고독 등 생활상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문제를 친구처럼 경청하고, 그분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생명의전화에서는 전문가들과 사회봉사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신의학, 심리학, 상담, 간호학,

사회복지학 등을 공부한 이들로 교육관계를 많이 담당하고, 전화 상담은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맡고 있는데 전국에 5천 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이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상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정도의 교육과정과 실무에 필요한 시뮬레이션 교육 후 어느 정도 상담에 자격이 인증된 사람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상담을 하고 있으며 이들 자원봉사자의 가장 큰 능력은 ‘공감’이라고 하 원장은 말한다. 이들은 마치 전화 건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인 것처럼 여긴다. 때문에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려는 전문가들보다 오히려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고 말한다. 하지만 24시간 운영되는 시스템에서 양질의 상담자를 교육하고, 길러내는 일은 많은 노력과 재정을 필요로 해 국가적인 지원이 아쉬운 상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추구하는 생명존중의 가치가 우리와 잘 맞아

국가적인 지원이 아직은 미비하고, 자원봉사자들의 후원이나 기관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운영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던 중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2008년도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설립 되면서 중점 사업으로 5가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중 한 파트가 자살예방파트였던 것.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태백지방에서 자살자 심리부검과 사후 예방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하는 가하면, ‘생명 사랑 밤길 걷기’라는 범국민 생명존중운동 프로그램 등도 시행할 수 있었다. 이 행사는 단순히 작은 행사가 아니라 재단의 지원으로 범국민 행사처럼 커져서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큰 행사가 되

기도 했다. 하 원장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추구하는 생명존중의 가치가 우리와 잘 맞아요.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하는 게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 생각하고, 이런 것을 생각한 분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싶어요. 이 일들이 분명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는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자살을 세계 1위, 미비한 국가지원 아쉬워

그는 ‘자살률이 세계 1위 잼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은 아주 미비해요. 자살 기도자는 실제 자살자의 10배~20배 정도예요. 한 해 15만 명 이상이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해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예요. 그야 말로 어머어마한 숫자죠. 때문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관심을 가져준 것 자체가 우리나라 자살 예방 활동에 변화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앞으로도 자살을 예방하고, 유가족 치료, 24시간 운영되는 라이프 라인의 핫라인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 양질의 상담 인력을 교육해 나가는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많은 도움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하 원장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절망적인 선택을 하려는 이들이 있다면 ‘살다보면 자살이라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살을 선택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생각만큼 절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상황자체가 너무 암담하고,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지더라도,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자살이라는 선택보다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길 바라요.’라고 말하며 ‘언제든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울 때면 한국생명의전화 1588-9191로 전화를 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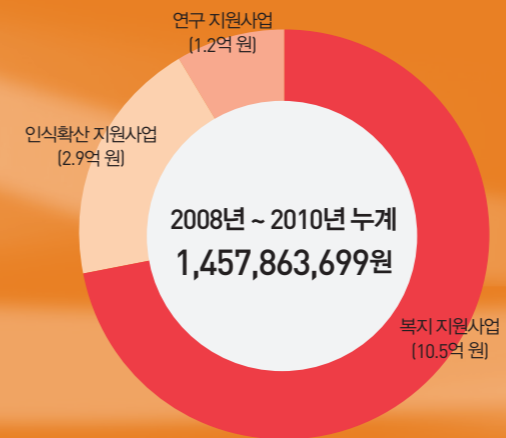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치매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치매 요양 시설 및 관련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치매노인과 그 가족의 지원을 통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 치매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은 총 3개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치매가족 대상 교육·상담 등 복지프로그램, 치매노인 케어를 위한 교육 사업, 치매노인 및 가족대상 복지·재활 프로그램, 재가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둘째, 인식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등 캠페인성 사업,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 및 교육 교재·사례집 등 제작·배포 사업,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 사업을 지원합니다. 셋째, 연구지원 사업입니다.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에 관한 연구, 치매의 진단 및 치료관련 기초 및 임상연구, 치매환자 및 가족 대상 재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합니다.

복지 지원사업	
2008년	255,492,000원
2009년	511,081,000 원
2010년	282,511,699 원
합계	1,049,084,699 원



인식확산 지원사업	
2008년	108,110,000 원
2009년	178,109,000 원
합계	286,219,000 원

연구 지원사업	
2008년	49,000,000 원
2009년	51,000,000 원
2010년	22,560,000 원
합계	122,560,00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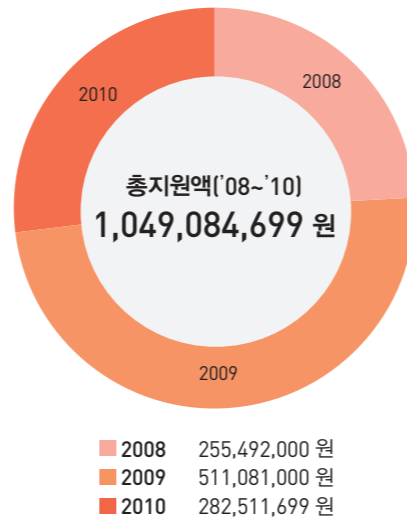
복지 지원사업

치매환자를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재가 서비스 등을 통하여 치매관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 치매환자 인지향상(재활) 프로그램, 치매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중증치매방지를 위한 주간보호 프로그램 등
협력기관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온누리요양센터,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74 기관



치매예방 사랑나눔 에버랜드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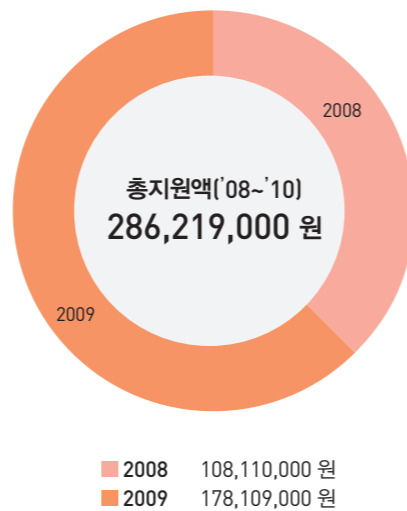


인식확산 지원사업

치매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치매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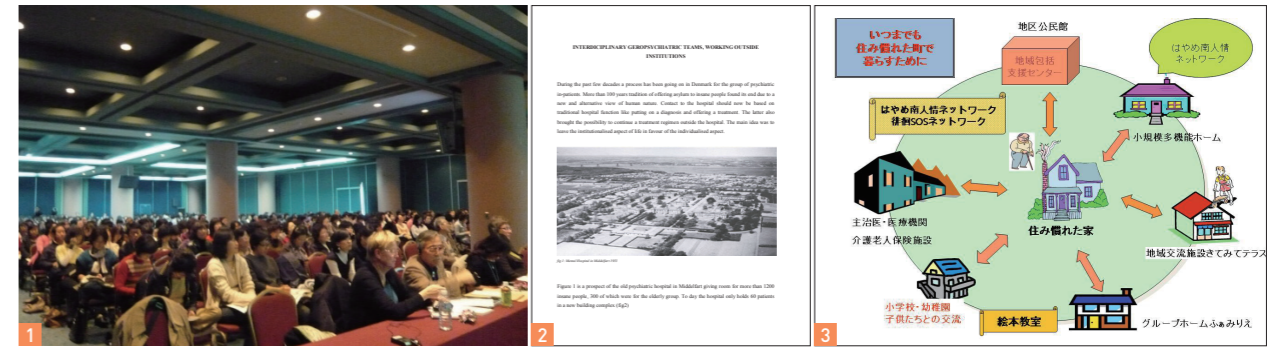
사업내용 치매노인 케어영상 DVD 제작 및 보급, 치매경증노인의 연극단 공연 등
협력기관 한국치매가족협회, 생명이전화중합복지관,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10개 기관

Jumping up life in community 사업박람회 및 포럼



연구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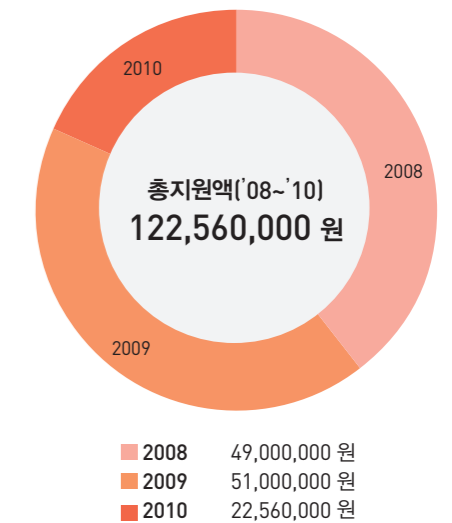
치매의 진단, 치료관련 기초 및 임상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치매의 예방 및 조기발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치매예방 연구 컨퍼런스
 2. Interdisciplinary Geropsychiatric Teams, Working Outside Institutions
 3. 인지증의 사람이 지역에서住みかけられるように

사업내용 Ursodeoxycholic acid(UDCA)의 항치매효과 규명, 구조적인 인생 회고 프로그램이 치매환자의 인지 기능과 뇌파에 미치는 영향, 치매노인 가족수발자를 위한 지지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협력기관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김형춘, 신라대학교 의생명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 한동욱,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효신 등 총 3명



사업별 세부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단체	지원금액
경증 치매노인의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프로그램	당감종합사회복지관	39,574
3단계 네트워크를 통한 등급외 치매노인 생명활동 활성화사업 '네(net) 벗삼아 화이팅'	은누리요양센터	38,000
수급·저소득 어르신 치매 예방을 위한 건강·심리·정서적 안정 증진을 위한 통합적 지지체계 지원 프로그램 '치매예방 젊은우리'	부천종합사회복지관	37,890
가족으로부터 보호되지 못하는 영구임대아파트내 저소득 노인의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기능 향상 및 우울감소 프로그램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37,675
치매 및 뇌졸중 어르신의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도우미 프로젝트 II -2Win 실버 도우미 -	대덕종합사회복지관	31,585
황혼의 늪, 치매어르신의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II	꽃동네육천노인요양원	30,620
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 치매노인의 지역사회 보호 및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사업	성동노인종합복지관	27,636
치매노인 가족의 부담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기능 강화 및 역량 강화사업	양지종합사회복지관	26,208
치매어르신들의 성공적 노화준비를 위한 One-stop 프로젝트 「Hello! 치매사랑!」	정토주간보호센터	27,700
시설가주 치매노인과 지역가주 치매노인이 함께하는 지역 연계 통합재활 프로그램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25,254
시설입소 치매어르신의 신체구속에 대한 인식개선 및 폐지·예방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전문교육	서울시노인복지시설협회	25,070
지역사회내의 소외 치매노인을 위한 통합사회복지 서비스 '사랑의 손길'	양지노인마을	23,945
저소득 치매노인의 행복한 가족 설계를 위한 주부양자 정서적 지원프로그램 '나는야 행복한 가족설계사'	성남주간보호센터	23,830
치매노인 가족의 수발능력 향상을 통한 '즐거운 우리집' 만들기	동여수노인복지관	22,850
강남구 지역 어르신의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 바로 알리미 사업	강남종합사회복지관	22,410
치매노인 및 가족 지원사업	광주시정신보건센터	20,000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발생한 복지사각지대 치매어르신을 위한 주간보호 프로그램	문수실버복지관	20,000
지역 내 치매 어르신의 사회안전 지지망 형성을 위한 전문 치료 도우미 파견센터	신내종합사회복지관	20,000
치매 인식개선과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형 복지지원 프로그램	이화여대 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000
치매예방을 위한 독거어르신 찾아가는 동화책 대여 및 동화 구연 사업	함께사는 강원세상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20,000
치매어르신 주말보호프로그램	사직주간노인복지센터	19,990
치매노인과 가족의 기능향상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참 좋은 우리가족 한누리 되기'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19,980
치매노인가족의 부담부담 및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주말지원 프로그램	옥수종합사회복지관	19,961
치매예방 및 지연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따뜻한 동행'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19,940
치매어르신들의 증상단계별 정서-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자기 가치 회복 프로그램	정토노인주간보호센터	19,900
치매노인 가정 해체 예방을 위한 치매노인, 가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안성시노인복지관	19,540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외, 저소득 치매노인을 위한 재가서비스 및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	영주노인복지센터	18,181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유지 및 심신 안정을 위한 원예 프로그램	청주노인복지센터	18,456
재가시설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사회 환경적 치료 프로그램	행복창조노인복지센터	18,296
치매어르신의 행복 찾기 프로그램 '살맛나는 인생'	음성꽃동네노인요양원	17,625
치매어르신을 위한 작업치료 프로그램	사직종합사회복지관	17,547
시설 입소 치매노인과 홀로배우자의 노년기 부부관계 강화를 통한 치매노인 가족지원 프로그램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17,354
더불어 함께하는 한마음 세상	한마음복지재단	17,300
할머니하고 나하고-치매어르신과 아동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	한솔종합사회복지관	16,920
중증 치매노인들을 위한 건강재활 프로그램	프란치스코의 집	16,147
저소득 경증치매노인의 인지기능 및 일상생활 활동능력 향상을 위한 내 머릿속의 기억주머니	광주오치종합복지관	16,015
치매노인 가족 통합프로그램 '이해와 소통으로 하나되는 우리가족'	동대문치매주간보호센터	14,510
통합예술치료를 통한 경증 치매노인의 정서적 안정과 인지기능 향상 및 사회성	임마누엘실버홈	13,340
치매정도별 전문서비스를 통한 생활시설 치매어르신의 사회기술 증진 프로그램	월명성모의집 노인전문요양원	13,324

복지
지원사업
[58건]

단위 : 천원

사업명	단체	지원금액
장기요양보험 비인정자(4-5등급)인 저소득, 후기고령노인과 부양가족의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장기요양 예방체계 구축사업	강동노인종합복지관	13,194
치매노인의 인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음악기법을 활용한 '인생은 즐거워' 프로그램	음성군노인복지센터	12,680
노인주간보호센터 어르신과 가족구성원의 치매 및 우울증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지를 위한 원예치료	단원구노인복지관	11,000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휴식을 통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산남노인복지센터	10,897
복지사각지대 농촌 여성재가노인들의 인지적 자조능력 강화를 위한 '치매몬테소리 프로그램'	은혜의집 노인주간보호센터	10,690
우리는 환상의 커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손자녀 맺어주기 '멘토링 프로그램'	김제노인전문요양원	10,580
지역 치매 노인 지원사업	라파엘복지재단	10,000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임파워먼트 강화를 위한 행복한 우리가족 만들기 프로그램	실버벨노인복지관	9,998
좋은 케어를 통한 치매노인의 잔존기능 유지 및 삶의 질(Quality of Life)향상 사업	성심요양원	9,788
농촌지역 치매-허약-독거어르신을 위한 통합예술치유 프로그램	완주노인복지센터	9,210
실용공예 활동을 통한 시설입소 어르신 인지재활 프로그램	충주명화의집	8,800
치매 증상 악화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방문인지 훈련 프로그램 '하 하 하'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8,300
등급 외 어르신들의 중증치매 방지를 위한 주간보호 프로그램 '나이야 가라! 치매야 가라!'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8,225
치매로의 악화가능성이 있는 '인지기능저하'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기능강화와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치매노인 재활프로그램	중구노인복지관	7,500
여가활동을 통한 신체적·인지적·정서적 강화프로그램	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	7,407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 스트레스 경감을 통한 소진예방 프로그램	강북노인종합복지관	7,278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통한 치매예방과 재활	초정노인전문요양원	6,765
치매어르신 부양가족 부양스트레스 감소를 통한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성심의집	6,305
지역사회 내 잠재적 치매노인 발굴 및 예방과 그 가족에 대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 휴머니즘 & 휴(休)머니즘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5,895
소계		1,049,085
치매노인 케어교육 지원사업(DVD제작 보급)	한국치매가족협회	100,000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치매의 효율적 관리 대책'	한국치매가족협회	30,000
치매경증 어르신들이 만드는 '깜빡이 깜빡이 연극 공연단'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9,720
치매 인식개선요원 양성 및 치매전문 easy web 구축 사업	광주시노인종합복지회관	29,400
강남구 지역 어르신의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 바로 알리미 사업	강남종합사회복지관	29,100
치매노인 케어서비스 확대를 위한 케어 매뉴얼 제작 및 지역 주민교육 프로그램	연꽃피는집노인요양원	24,650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치매지킴이 사업	고흥군노인전문요양원	20,930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 순회교육	성심요양원	13,709
치매어르신의 전문케어 접근과 체계적인 업무 매뉴얼 작성을 위한 직원교육	복음실버타운	5,700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치매전문 자원봉사자 교육	대구가톨릭치매센터	3,010
소계		286,219
구조적인 인생회고 프로그램이 치매환자의 인지기능과 뇌파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의과대학 / 한동욱	47,560
UDCA의 항치매효과 규명	강원대학교 / 김형춘	45,000
치매노인 가족수발자를 위한 지지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 김효신	30,000
소계		122,560
합계		1,457,864

복지
지원사업
[58건]

인식확산
지원사업
[10건]

연구
지원사업
[3건]

지원사례

● 부천 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자조프로그램

「치매예방 젊은 우리」

치매를 사전 예방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

● 사업대상 부천시 원미구 소사 지역의 저소득 어르신

●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 원미구 소사 지역은 수급자 1,533명 중 65세 이상이 904명으로 노인문제가 심각한 저소득 밀집 지역이다.
-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고위험군인 저소득 노인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건강증진 및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종종 치매환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

● 주요 사업내용 및 수행 실적

치매예방 교육

전문 의료진에 의한 치매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내용은 시각적 자료 및 실습을 통한 교육, 노인 우울증 및 스트레스 대처에 관한 교육 등이었다.

치료 레크레이션

총 7색선의 전문 치료 레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과녁 맞추기, 풍선 배드민턴, 쓱쓱 빙고, 테이블 탁구 등이 그것이다.

기억력 향상 프로그램

정확한 정보 인지를 위해 7색선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림 찾아내기, 인물 찾기, 위치 기억하기 등 오감을 활용한 기억력 향상프로그램과 냄새 기억하기, 촉감 기억하기 등 시각적 도구를 통한 기억력 향상 두뇌 훈련을 진행하였다.

전문가 평가의견

- 지역사회 단체와의 연계 사업, 강사에 대한 높은 만족도 등이
- 치료적 프로그램과 예방적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사업 내용의 구성과 성과지표, 평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 지역사회 단체와의 연계 사업, 강사에 대한 높은 만족도 등이 돋보였으며, 복지부 특화사업으로 선정(최우수 프로그램상 수상)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 우울증 감소, 생활 만족 향상, 정신상태 향상에 효과가 있었



감사편지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은 자체적으로 2005년 노인건강 관리 자조 프로그램을 2007년 치매예방 사업으로 계량/발전 시켜왔습니다. 2008년~2009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1차 사업 지원으로 치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수급/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되어 2009년~2010년도 2차 사업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치매 위험도가 높은 수급/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치매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울증을 완화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지지체계가 미약한 어르신들에게 지지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연계를 통해 치매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차원의 통합적 네트워크 기틀을 만들 수 있었고, 지속적인 지역사회 연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Client 관리 노력으로 치매예방사업의 모델화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에 힘입어 사업의 양적, 질적 발전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통합적 지지체계 프로그램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습니다. 돌심양면으로 저희 사업을 지원해주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정승규 사회복지사

1. '치매예방 젊은 우리' 개강식
2. 소사 선녀들의 화목한 외출 / 치매노인 나들이
3. 기억력 향상 프로그램 '나를 소개해 봐요'

지원사례

● 서울 정토노인주간보호센터

치매 어르신들의 자기가치 회복 프로그램

「여든 지팡이의 화려한 외출」

치매를 이기기 위한 신체, 정서, 사회생활 등 전방위 접근

● **사업대상**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치매 증상을 가진 어르신

●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치매노인의 급증과 그 가족들의 부양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 치매 어르신을 위한 전문 시설이 미비하여 보호 차원에서 케어 서비스를 넘어 치매 증상별로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치매 어르신의 독립된 생활 영위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공존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 **주요 사업내용 및 수행 실적**

신체가치 프로그램

구로복지관 간호사, 운동치료사의 지도로 자원봉사자와 1:1로 연계한 '파워업고고'(주1회, 총 35회), 서도민요와 춤을 가미해 신체·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스텝업고고'(주1회, 총 40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정서가치 회복 및 인지협응 프로그램

- 치매간이검사와 사례회의를 통해 치매 어르신들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음악·미술·원예·웃음치료 등)하여 자아존중감 및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을 이끌었다.
- 지속적인 지적활동(하늘천따지, 도리도리잼잼 등)을 통해 치매 어르신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따라하기 쉬운 건강체조와 웰빙요가로 신체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동아리 활동 및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 사군자 클럽, 독서 클럽을 만들어 어르신들의 흥미 유발을 지원하였다.
- 패밀리레스토랑 이용, 영화 관람 등 지역사회 내 체험 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험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전문가 평가의견

- 치매노인 증상별 지원체계 확립,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 사업수행 과정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 지역사회 내 기관들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활용하였다.
- 치매노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여러 단체를 가담시킴으로써 치매를 관리 가능한 병으로 이해시키는 인식전환을 가져다줄 프로그램이라고 판단된다.



감사편지

어머니의 꽃단장 —
우리 어머니께서 정토데이케어센터와 인연을 맺으신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센터를 이용하시면서 친구도 많이 사귀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시면서 기력도 회복 하셨습니다. 이런 덕분에 평소 아침 잠이 많으셨던 분이시지만 센터에 나가시려고 세안을 하고, 꽃단장을 열심히 하신답니다.

가까이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도 가끔은 힘들기도 하지만 든든한 지원군인 정토데이케어센터가 있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센터를 이용하시면서, 하루가 다르게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한 어머니를 보면 그동안 집안에서만 옥신각신 하던 생각이 나 왜 빨리 이런 곳을 보내드리지 못했냐하는 송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노년의 행복한 여유를 만끽하시는 우리 어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더욱 즐거운 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곳에서 더욱 즐거운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토데이케어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주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 우리 센터 이용어르신 및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어르신들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선생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최서은 어르신 둘째딸 오순임

1. 정토노인주간보호센터 가족간담회
2. 행복세상만들기 '가족나들이'
3. 실버(락) 페스티벌

지원사례

● 서울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 노인의 치매 조기발견과 예방 프로그램

「GO-STOP」

복지 사각지대 독거노인 대상이어서 더욱 의미

● **사업대상** 서울 강서구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저소득 노인

●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지역 주민의 48.7%가 저소득 치매노인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고, 또 지역의 수급세대 노인 258명 중 73%(187명)가 독거노인으로 가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치매의 발병을 발견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다.

● **주요 사업내용 및 수행 실적**

치매 조기검진, 노인우울증 척도검사, 치매예방 교육

사전검사 6회(총 107명), 사후 검사 3회(총 83명) 및 웃음치료를 통한 치매 예방 교육(총 27명), 동영상 활용을 우울증과 치매에 대한 교육(총 19명)을 실시하였다.

신체기능 향상, 정서반응 자극,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 신체기능 향상을 위해 종이접기 44회기 총 604건, 한지공예 24회기 총 208건, 발마사지 52회기 총 615건, 노인건강체조 28회기 총 361건을 진행하였다.
-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 원예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를 각 44회기, 33회기, 33회기 진행하였다(각 총 355건, 246건, 249건).

치매예방을 위한 종이접기 프로그램



전문가 평가의견

-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지속적인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사회 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 치매예방 교육 및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사례

● 서울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치매노인과 배우자의 관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아름다운 나의 반쪽 내 인생의 천생연분」

치매가족의 긍정적 삶에 포인트 둔 것으로 독창적

● **사업대상**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입소 치매노인과 배우자

●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치매노인 부부의 경우 배우자 한쪽이 수발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설 입소를 선택하곤 한다. 그런 까닭에 시설 입소중인 치매노인과 배우자의 부부관계를 강화하여 심리적인 아픔을 회복시켜줄 필요가 있다.

● **주요 사업내용 및 수행 실적**

나의 왕년시절, 부부 하나되기, 부부가 함께 떠나는 마실

치매노인과 배우자가 '전통혼례 복장 꾸미기', '우리 아이 옷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소중한 추억을 되살리고, 또 '배우자에게 주는 훈장', '마음에 쓰는 편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의 친밀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영원한 천생연분, 축훈행진곡, 황금연못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대비하고, 황혼식을 하고, 가족과 여행을 다녀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감동의 황혼식' 올린 노인부부



전문가 평가의견

- 치매노인 가족의 관계 강화에 포인트를 둔 것은 매우 독창적이며, 치매노인 시설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모델로 사료된다.
- 치매노인, 가족 및 지역사회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원사업의 취지를 잘 부각시켰다고 판단된다.

지원사례

● 충북 은혜의집 노인주간보호센터

농촌지역 여성노인에 맞춘 치매예방 프로그램

「치매몬테소리 프로그램」

농촌의 복지 사각지대인 치매 여성노인에 대한 사업 롤모델 제시

● 사업대상

충북 현도면에 거주하는 경증 치매자 또는 치매 가능성이 있는 여성 노인

●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 농촌 지역의 여성 노인들 경우 남성보다 더 높은 치매 유병률을 갖고 있으면서도 합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가족붕괴, 노인자살 등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
- 이런 환경에 있는 치매노인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자면 그 가족까지 프로그램 범주에 넣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주요 사업내용 및 수행 실적

치매몬테소리 프로그램

슈퍼비전 회의를 통해 수행할 프로그램을 개발·확정하고, 35종의 교구를 준비하였다. 이어 현도면사무소, 보건지소 등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고 사전·후로 나누어 29회기의 MMSE-K(간이정신상태검사)를 실시하였다.

농촌 치매노인 케어를 위한 가족이해 특강

치매노인 가족을 대상으로 '현대에서 가족의 의미', '치매의 이해' 등 특강을 진행하고, 농촌에서 생활하는 노인이 해결해야 할 과제 25문항을 선정하여 설문 후 수행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치매몬테소리 프로그램 '노년이 아름다운 현도'



전문가 평가의견

- 정부의 치매노인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프로그램 참여 노인에 대한 인간 중심의 접근으로 인지적, 정서적 기능 향상에 기여했다.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매우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한 모범사례로 추천할 만하며, 언론을 통한 홍보로 사업 취지를 전파시킨 것도 긍정적이다.

지원사례

● 한국치매가족협회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와 치매의 효율적 관리 대책」

치매 관리는 가족만이 아닌 사회문제란 점 부각시켜

● 사업대상

치매환자 가족, 유관 병원 및 시설의 전문 인력, 정부관계자 등

●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치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노인에 대한 관리를 사회가 분담하게 된 것인데, 아직은 치매 관리 체계가 미비해 인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 주요 사업내용 및 수행 실적

인식개선 컨퍼런스

노인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치매 가족, 학계 등 총 575명이 참석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와 치매 관리, 가정과 시설 내의 환자 간호 및 문제 행동 대처 방안, 치매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복지적 접근 등을 논의하였다.

치매인식개선 컨퍼런스



전문가 평가의견

- 재단의 사업과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하면서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선진국의 케어 방법을 보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정부가 실시하지 못하고 치매노인과 그 가족이 직접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을 재단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터뷰

‘치매 지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죠’

치매관련사업에
앞장서 온
한국치매가족협회
이성희 회장

하루는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딸이 이성희 회장을 찾아왔다. 부산에서 조선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치매로 사업을 접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돌보시던 중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치매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매일 옥상에 올라가 어머니가 오시기만을 기다린다는 안타까운 사연이었다. 현실적으로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의 경우 치매환자가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한다. 치매환자의 간병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희 회장을 찾은 딸은 달랐다. 매일 옥상에 올라가 어머니를 기다리시느라 새까맣게 그을린 자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자신이 보살필 수 있는지를 상담하러 왔다. 이런 치매환자나 가족들을 돕는 일에 사재까지 털며, 그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치매가족협회의 이성희 회장을 만났다.



한국치매가족협회 이성희 회장

치매가 ‘뇌의 질병’임을 인식시키고,
환자 가족들을 돕고 싶어 시작

이제는 치매 환자를 둔 가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한국치매가족협회는 지난 1991년 3월 문을 열었다. 1979년 노인복지회에서 활동하던 이성희 회장은 어려운 가정의 노인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진행했다. 노인을 찾아가 씻겨주고, 치매에 걸려 거리에서 마구 주어진 쓰레기들을 치워주며 청소를 해 나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돌아오는 말은 ‘고맙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 물건을 다 훔쳐간 도둑놈’이란 비난이었다. 당시만 해도 ‘치매’가 뭔지도 모르던 때, 노인들은 치매증상으로 이미 제

대로 된 상황인식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때부터 가족모임을 진행했다. 그러나 참석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가정을 방문해 이유를 물어보니 치매 노인을 두고 집을 비울 수 없었던 게 이유였다. 이성희 회장은 사재를 털어 오디오와 쇼파를 갖추고 어르신들을 봐 드릴 테니까 모임에 참석할 것을 권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치매’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조차 없을 때였지만 그녀는 치매 환자와, 무거운 부담으로 힘겨워하는 가족들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이 많은 도움이 돼

그녀의 이런 노력은 치매 환자 가족 상담과 치매에 대한 홍보·계몽 활동, 치매 환자 보호 전문인력 교육을 담당하는 치매가족협회 설립으로 이어졌다. 가족모임으로 시작한 한국치매가족협회에서는 현재 2달에 한 번씩 가족모임을 하고 있다. 가족모임 외에도 전화 상담과 배회 팔찌를 배포하기도 한다. 치매 환자는 돌아다니다가 겨울에 길거리에서 얼어 죽는 일이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회 팔찌를 만들어 배포하였는데, 현재 1만5천 건 등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 시설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해 오고 있다. 여기에 치매환자를 위한 지역시설을 만들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 회장은 치매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치매의 경우 의학적으로 10~15년 전부터 진단이 가능하다. 이때부터 정부 차원에서 예방 대책이 이뤄져야 함에도 예방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나 복지가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의 지원은 더할 나위 없이 큰 도움이 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연계가 된 것은 2008년 12월, 코엑스에서 열린 ‘장기요양보험과 치매관리대책’이라는 행사를 지원받으면서 부터였다. 12월말이었는데도 6백 명 이상이 행사에 참석

했다. 그만큼 치매 문제가 절실했던 것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4천만원 가량 지원받아 소규모의 경증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그룹 홈을 만들고, 시설을 만들었다. 반응도 좋았고, 재단에서도 흐뭇한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해에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으로 ‘마음의 행로’라는 DVD를 만들 수 있었다. 이 DVD는 사회복지기관과 보건소에 모두 배포되었다. 우리나라에 아직 제대로 된 치매 교육 자료가 없었는데, 시청각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서 반응 또한 아주 좋았다. 또한 지난해 12회였던 서포터즈도 올해는 더 늘려서 지역에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게 되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 더할 수 없는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치매는 ‘뇌의 질병’임을 인식하고

책임을 다하는 게 후회 없을 것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환자 수는 36만 정도로 추정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지원은 미미하다. 그녀는 우리나라 치매지원 정책이 근본적으로 다시 세워져야 된다고 말한다. 또한 치매가 ‘뇌의 질병’이란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알고자 한다. 간혹 치매가 교육으로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 환자 가족들도 있다. 그러나 치매는 가르친다고 나아지지 않는다. 이 부분은 미리 포기하고, ‘환자라서 그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으로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려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돌봐드릴 것인가를 생각하고 책임을 다한 후 보내드리면 후회는 없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치매관련 사업을 하다보면 지칠 때도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얘기도 듣는다. 하지만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과 함께 선한 일을 하며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하면, 우리나라 치매인식 계몽 및 관련 복지나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저출산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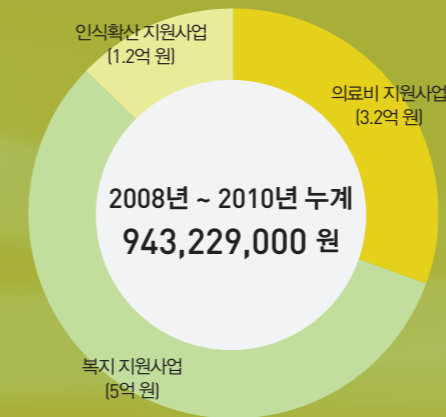
저출산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여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령임신으로 인해 증가하는 고위험임산부들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고 생명존중의 의미를 나누려 합니다.



저출산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은 총 3개의 사업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고령혼인으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고위험임산부를 위해 검사비 및 분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산·전후 관리 및 보호 교육사업, 청년 및 저소득층을 위한 올바른 성·결혼·출산·육아상담과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의 영아 보육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셋째, 인식확산 지원사업입니다. 혼인,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교재 개발 및 보급사업 등이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사업

2009년	160,000,000 원
2010년	160,000,000 원
합계	320,000,000 원



■ 복지 지원사업

2008년	159,949,000 원
2009년	229,214,000 원
2010년	114,266,000 원
합계	503,429,000 원

■ 인식확산 지원사업

2008년	59,900,000 원
2009년	59,900,000 원
합계	119,800,000 원

의료비 지원사업

고령임신의 증가로 합병증 및 미숙아 출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고, 상담서비스와 정보제공을 통해 여성과 영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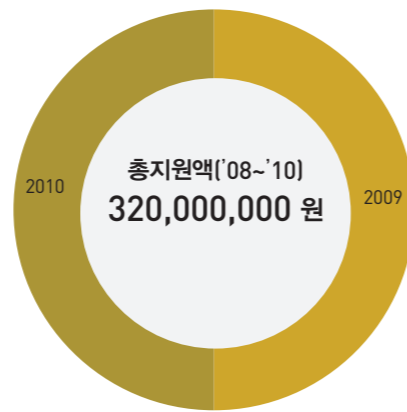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 예방교육

사업내용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및 고위험임신 예방교육
협력기관 인구보건복지협회

※ 고위험임산부란? - 임신중독증, 전치태반, 역아임신, 임신성 당뇨병과 같이 임신 또는 기존의 질병으로 인해 모체나 태아가 위험에 노출된 35세 이상 산모



2009 160,000,000 원
2010 160,000,000 원

복지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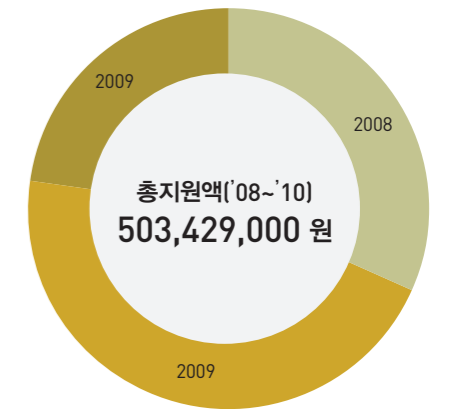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성·결혼·출산·육아상담 및 교육, 미숙아 및 장애아에 대한 재활지원

협력기관 대한사회복지회, 동대문사회복지관,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총 19개 기관



미숙아 발달장애 조기 진단 교육



2008 159,949,000 원
2009 229,214,000 원
2010 114,266,000 원

인식확산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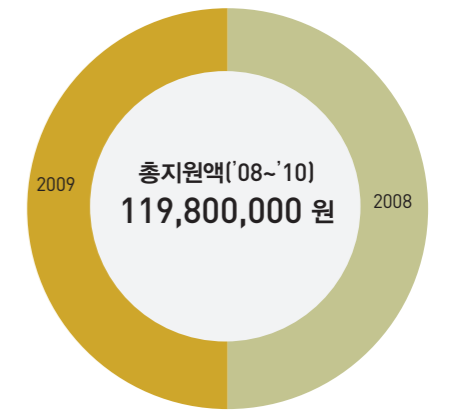
저출산 문제에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인식을 개선하여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혼인·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교재 개발·보급,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및 유·사산 예방 캠페인

협력기관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여성디자인포럼 등 총 4개 기관



가족사랑 '동생이 있어 좋아요!' 발표회



2008 59,900,000 원
2009 59,900,000 원

사업별 세부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단체	지원금액
미숙아의 발달장애 조기진단을 위한 선별검사 시스템 구축 및 교육사업	한국장애아통합실천연구회	60,000
발달단계에 있는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재활치료 프로그램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49,963
미숙아동의 운동능력과 의사소통능력, 사회성 향상을 위한 의료복지사업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44,100
다감각 체험공간에서의 감각자극을 통한 다영역 발달 촉진 프로그램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38,293
다영역적 접근에 의한 미숙아 조기재활 프로그램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35,540
청소년 양성평등 가치관 확산 및 동대문구 저출산 문제해소를 위한 대학생 전문 자원봉사 연극단, 네르투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30,000
시설 청소년 대상 임신예방과 미래 임파워먼트 교육	프로라이프	30,000
다문화가정 여성의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통합지원 프로그램 '다다익선'	유성구종합복지관	30,000
미아성 (미혼엄마의 아름다운 성을 위하여)	대한사회복지회	30,000
미숙아 아동을 위한 가족중심 조기중재 프로그램 '엄마, 아빠와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29,630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각적 발달지원 프로그램 '이른둥이 희망둥이'	울산시장애인복지관	27,750
싱글맘, 새로 시작하기 - 미혼모 출산 전후 건강관리 프로그램	아침뜰	26,300
건강한 임신과 출산, 육아를 통한 튼튼한 다문화가족 형성 지원사업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25,000
예비부부(부모) 대상 건강한 임신 출산 교육 프로그램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17,600
지역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기의 올바른 성의식 전환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성교육 프로그램	용인종합사회복지관	14,400
다문화가족 건강한 엄마되기 프로젝트 '해피맘'	영진종합사회복지관	8,863
엄마와 함께하는 이른둥이 아동의 감각발달을 위한 '마사지 교실'	전라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5,990
	소계	503,429

복지
지원사업
(17건)

단위 : 천원

사업명	단체	지원금액
2009 출산양육 지원사업 (고위험임신부 등)	인구보건복지협회	160,000
2010 출산양육 지원센터 (고위험임신부 등)	인구보건복지협회	160,000
	소계	320,000
저출산문제와 인식개선	한국부인회총본부	30,000
출산장려디자인 특별전	한국여성디자인포럼	30,000
희망찬 미래, 생명사랑 문화정착을 위한 전국투어 캠페인	프로라이프	30,000
미취학 아동의 출산친화 가치관 조성 콘텐츠 개발, 보급	인구보건복지협회	29,800
	소계	119,800
	합계	943,229

의료비
지원사업
(2건)

인식확산
지원사업
(4건)

지원사례

● 서울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양성평등 가치관 확산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대학생 연극단 「네르투스」

젊은 세대의 연극을 통해
저출산 문제 인식개선에 효과적

- **사업대상** 서울 동대문구의 대학생 및 청소년
-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 동대문구의 합계출산율은 1.0명(2007년 기준)으로 서울의 25개구 중 강남구, 종로구, 서초구, 광진구에 이어 5번째로 낮고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1.26명)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동대문구에는 많은 수의 유흥업소들이 밀집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성을 키우고 양성평등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
 - 또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삼육간호보건대 등 대학이 많아 20대 초반 젊은이들의 거주 및 이동이 빈번한 것도 예비부모로서 결혼과 임신,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해 적절한 정보와 인식을 습득하는 데 불리한 여건이 된다.

● **주요 사업내용 및 수행 실적**

소양교육

관내 대학생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원인과 그 심각성을 주제로 총 4회의 소양교육을 실시하였다. 결혼의 의미와 출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성역할에 대해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공연

5개의 팀을 구성하여 5회의 공연을 실시하였다. 총 901명이 연극을 보으며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 기획으로 성, 결혼, 출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전했다.

전문가 평가의견

- 저출산 해소와 미숙아 지원 사업에 대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교육한 것은 문제로 홍보하고 교육한 것은
- 대학생 연극단을 통해 중·고등학생의 인식 개선에 접근한 것은 새로운 시도이고 향후 여러 대학의 연합으로 활동을 한다 면 보다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감사편지

네르투스 활동할까 소감문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공연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경험은 어디에서나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의외로 흥미로웠습니다. 백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연극을 통한 접근은 공연을 준비하는 저의 단원들에게나 공연을 접한 학생들에게나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고 오래 기억에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건 알았지만 그것이 아직 결혼 할 나이지도 아이를 낳을 입장도 아닌 제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네르투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초반에 한 기초소양 공부도 흔히 우리 주위에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만 정작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를 갖기 힘든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주었습니다. 기초 소양 공부와 연극을 위한 준비해서부터 실행까지 경험하면서 어디에서도 쉽게 얻기 힘든 특별한 활동을 경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봉사활동이라 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네르투스의 봉사활동에는 그것과 더불어 즐거움이 있었습니니다. 기존의 봉사라고 생각하는 방식과는 조금은 다른 경험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르투스 활동은 단원들과의 호흡이 어느 것보다 중요한 활동이고 활동하는데 시간과 열정이 많이 투자됩니다. 누군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스스로가 즐거운 일이어야 마지막까지 참여할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성도 필요하고요. 그런면에서 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도 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네르투스의 활동 끝에는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가 기다리고 있으니, 기다려지는 활동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지연

1. 양성평등 전문교육
2. 소양교육 정서강화형 소집단 구성
3.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공연

지원사례

● 울산 장애인종합복지관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재활치료 지원 프로그램 「이른둥이 희망둥이」

경제적·심리적 지원 통해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 사업대상

울산, 양산, 김해, 부산 내 거주 미숙아 중 의료진단을 통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만 7세 이하의 유아 가정

●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 고위험임신의 증가에 따른 미숙아 출산율이 증가하지만 미숙아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나 치료기관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 특히 울산지역에서 조기재활치료가 중요한 뇌병변 장애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지만 재활치료에 관한 정보제공과 치료기관간의 연계가 미흡하다.

● 주요 사업내용 및 수행 실적

재활치료 지원과 상담

- 총 33명의 미숙아 가정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재활치료비(약 3,389 만원)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숙아 가정의 정상적인 양육을 지원하였습니다.
- 미숙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산모들에게 미숙아 재활상담서비스와 재활정보를 제공하여(21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원스톱 정보망 형성

미숙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고, 보다 쉽게 재활치료 및 상담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른둥이 미니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가족지원 부모교육 '오감놀이'

경남 지역 내에서 2회에 걸친 소아과 전문의들의 강의를 통해 이른둥이 양육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른둥이 양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4회에 걸친 이른둥이 가족지원 부모교육(오감놀이)을 부산 아쿠아리움, 벅스코, 별난박물관, 인창병원, 창원 컨벤션센터 등에서 실시했다.

전문가 평가의견

- 사업 대상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 비해 추어 볼때 사업내용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미숙아, 그 부모,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를 포괄하고 있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가능했다.
- 가족의 참여와 다양한 정보 교류, 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대상자에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경제적으로 조기치료가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병원과 협력한 것은 바람직한 모델로 여겨진다.



감사편지

추운 겨울의 눈과 바람을 이기고 내면 어둠없이 대치는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우고 다시금 생기가 넘치게 되는 봄이라는 계절이 찾아옵니다.

저희에게도 그 추웠던 기나긴 겨울 속에서 가슴 벅차도록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임신입니다.' 그 말 한마디를 세상 어떤 것보다 바랄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큰 기쁨이 저희 가정에는 두 배가 되었죠. 쌍둥이 임신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을 접하며 저희 부부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돌잔치 행사를 꿈꾸며 하루 하루를 보내던 중 정전벽력 같은 소리를 의사선생님께 듣게 되었습니다. '조산' 그때는 그냥 아이만 일찍 태어나는 거라 생각했죠. 따뜻한 봄이 지나고 여름 초입에 들어갈 무렵 저는 두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두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애들 엄마와 퇴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 어리고 작은 아가들을 두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저희 부부의 눈에 소리없이 흐르는 눈물 작은 아가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주사 바늘을 꽂고 있는 그 자제만으로도 가슴 아픈데 황달 치료, 호흡곤란증후군, 뇌출혈, 괴사성 장염 등등 무서운 병들과 싸우고 있는 녀석들을 보며 힘내라 쌍둥이들!!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퇴원하는 날만 할 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치료를 잘 이겨내 주는 어린 생명들에게 감사하며 건강하게 퇴원하기를 기원하였지만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인한 폐혈증'으로 '뇌병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에 저희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부부는 시우를 안고 늦은 밤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하지만 시우의 밝은 미래를 꿈꿔 봅니다. 평생을 짊어져야 할 우리 시우에게 볼 햇살과 같은 세상이 조금은 있을거라는 희망을 안고 말합니다. 전사의 미소를 담은 우리 시우의 미소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누며 더불어 사는 세상, 아직도 따뜻함이 남아있는 세상을 느끼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우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도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겠죠. 이제 우리 가정은 '우리'라는 울타리를 튼튼하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든 날이 더 있었지만 한번 더 힘을 내 보겠습니다.

울산에서 시우 아버지

1. 성모병원 이른둥이(미숙아) 부모교육
2. 이른둥이 생일축하
3. '이른둥이 부모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인터뷰

‘출산을 제고에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작게나마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구보건복지협회 안효환 사무총장

국민의 상당수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저출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고위험임산부들을 지원하고,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돕고, 출산장려 인식개선 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안효환 사무총장을 만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노력을 들어봤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안효환 사무총장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시작은 가족계획협회로 당시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출산억제정책을 벌였던 단체였어요. 그러다가 현재는 반대 개념인 인구를 증가시키는 출산 장려 정책을 벌이는 단체로 성격이 바뀌었죠. 현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임신·출산·양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을 주요인으로 봐요. 특히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직장여성의 경우에는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기도 하고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협회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뜻을 같이하여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조부모 육아교육, 출산장려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요.

인구보건복지협회 식구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어떤 일을 추진하셨나요?

고위험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산전진료비와 분만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에 도움을 주었어요. 단순하게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지원자들과 출생아의 세심한 건강관리를 통해 지원 사업에 대한 질적 만족도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부모님들에게 현대적인 육아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조부모 육아교육도 실시하고 있어요. 출산장려인식개선사업의 경우에는 2009년, 콘텐츠를 제작해서 서울 지역에서 보급 및 설명회를 개최했고, 지난 회에는 전국 6개 시도(서울, 인천, 강원, 대전, 광주, 경남)로 확대 보급 및 설명회와 지역 발표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서울 본선 발표회를 개최했어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많은 일들을

추진하셨는데, 재단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우리 협회의 사업을 지원해주니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일들이 많은데, 특히 임산부 교육 같은 경우에도 재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본부에서 지회에 내려가서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출산을 준비 중인 여성들에게 아주 적합한 서비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실질적인 서비스를 필요한 대상에게 적합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도와주시니 그런 부분들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일을 진행해 오다보면 어려우신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고위험임산부 지원의 경우 지원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선정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안 되신 분들 중에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게

힘들죠. 조부모육아교육 관련 사업 분야의 경우에는 교육 대상이 노인들이다보니 자료제작에도 신경을 써야 되요. 또, 대부분의 노인들이 컴퓨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온라인으로 홍보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분야보다 홍보에 2~3배로 많은 노력이 듭니다.

오랜 기간 이 일을 해 오시다보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도 많을 것 같은데요?

고위험임산부가 임신이나 출산을 하는 경우 보람이 커요. 백혈병으로 투병 중에 임신한 분도 있었고, 7번 임신한 분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협회가 그 분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지원에 도움을 받아 태어난 아기들이 잘 자라고 있다며, 어머니들이 편지나 사진을 보내주시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아주 뿌듯하죠.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에 신청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더 많은 임산부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또 출산율을 높이고자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수립과 홍보에 힘을 기울이는 게 사실입니다만, 정부의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도 많고 실질적인 효과성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도 있어요. 재단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사업을 개발하고자 노력해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작게나마 협회도 일조를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차후에도 우리 협회와 더불어 출산율을 높이는데 의미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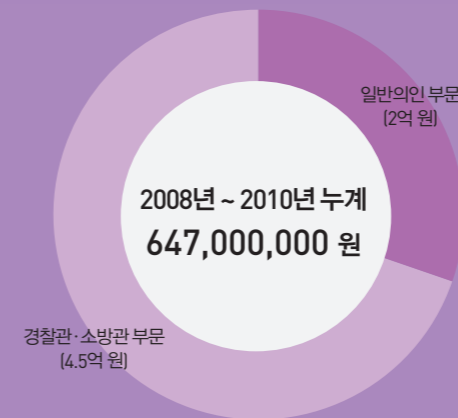
사회적의인 지원사업

사회적의인 지원사업은 투철한 사명감이나 생명존중정신을 발현하여 국가와 공동체 및 타인의 생명을 위해 헌신한 사회적의인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통하여 생명 존중 사상을 전파하며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위하여 헌신한 사회적의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고 생명존중정신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사회적의인 지원사업은 크게 이웃 및 공동체를 위하여 생명존중정신을 실천하는 일반의인 부문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경찰관·소방관 부문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사회적의인'이라 함은 고도의 생명존중정신을 발현하여 적극적·능동적 행위로써 국가·공동체 및 타인의 생명을 위하여 헌신하거나 '생명존중 생명사랑' 정신을 지속적·장기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공익확산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 일반의인 부문	
2009년	150,000,000
2010년	47,000,000
합계	197,000,000

■ 경찰관·소방관 부문	
2009년	350,000,000
2010년	100,000,000
합계	45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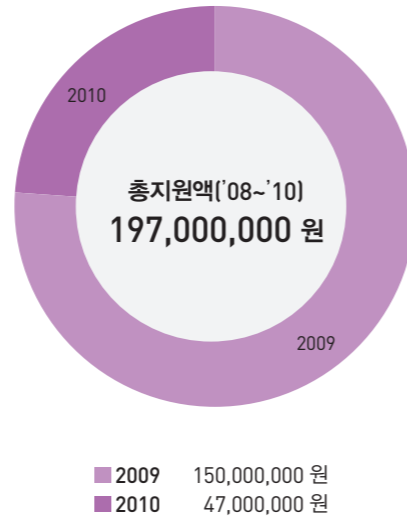
일반의인 부문

'생명존중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지원하여 사회 공익을 확산합니다.

사업내용 일반의인 지원금 전달



2010년 일반의인 지원금 전달



사업별 세부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지원자	지원금액
2009년	경찰관	69	350,000
	소방관		
	일반의인	5	150,000
	소계	74	500,000
2010년	경찰관	21	100,000
	소방관		
	일반의인	6	47,000
	소계	27	147,000
합계		101	64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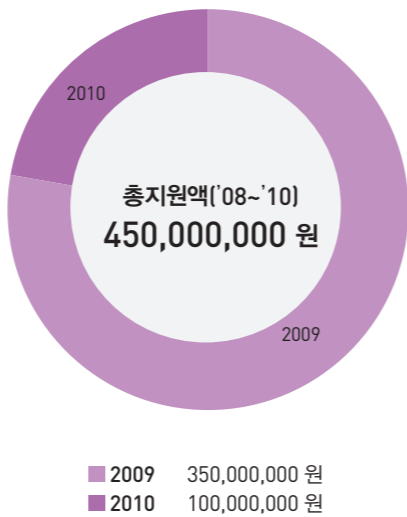
경찰관 · 소방관 부문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공상 소방관, 경찰관 및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사업내용 경찰관·소방관 지원금 전달
협력기관 경찰청, 소방방재청



공상 경찰관 지원금 전달



인터뷰

‘좋은 일을 하다가 손해 보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일반의인 부문 수혜자 남기형씨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흔히들 말한다. 길을 지나치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봐도 끼어들었다가 괜히 피해를 보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도움 주기를 꺼리게 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달랐다. 지난해 삼성동 화재 현장에서 8명의 생명을 구하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의인으로 선정된 남기형씨를 만났다.

자신의 위험보다 그저 ‘창문만 깨면 사람들이 살텐데’ 라는 생각으로 2010년 11월. 평소와 같이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남기형씨는 뒷 건물 3층에서 화재가 난 것을 보고, 동료와 함께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나갔다. 하지만 불길은 금세 번졌고 순식간에 3층은 고립되어,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곧이어 소방차가 도착. 불길을 잡기위해 긴 소방호수를 푸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이미 건물 안은 유독가스가 가득 차 있었다. ‘저 유리창만 깨도 유독가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소방관들은 저마다의 일에 정신이 없었다. 유독가스로 호흡이 곤란해진 사람들은 조그만 창문 사이로 입을 내밀고 숨을 쉬려했지만, 창으로 나오는 가스를 다시 마시게 되어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저러다가 다 죽겠다’란 생각이 들었다. 오직 ‘저 유리창만 깨면 숨통이 트일 텐데’라는 생각만이 떠올랐다. 주위를 보니 휴대용 소화기가 보였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유리창을 깬다. 그렇게 8명의 사람들을 구하고 깨진 유리창으로 사람들이 함께 내려오면서 사다리가 휘청거리 떨어질 뻔 했지만,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소방차 위에서 한 사람씩 내려주고 발밑을 보니 피가 흥건히 묻어있었다. 비로소 자신이 다친 것을 알고 병원으로 향했다.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었다고 했으나 화재 현장에서 다친 사람들로 가득 찬 병원엔 자신보다 위급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응급한 환자들을 먼저 치료할 수 있게, 자



2010년 11월 22일 발생한 삼성동 화재 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 시민을 구한 남기형(41)씨

신은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동한 후에야 치료를 받았다. 오른쪽 4번째 손가락의 인대를 다쳐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지만, 8명의 생명을 구했는데 이 정도야 괜찮다고 그는 말한다.

가족들의 걱정도 있었지만,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된 게 기쁘

사고 이후, 거의 모든 언론에서 그에 대해 보도했다. 연일 인터뷰도 이어졌다. 인대 파열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설 새조차 없이 찾아오는 기자들 때문에 쉬기는커녕, 함께 병실에 입원해 있던 다른 환자들에게 미안할 정도였다.

아무런 안전장비조차 없이 화재의 현장에서 8명의 생명을 구해낸 용감한 일을 한 그였지만, 가족들에게는 걱정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걱정할 가족을 우려해 아내에게 조차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 했으나,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해야 해서 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언론보도를 본 부모님은 크게 걱정을 하셨다.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런 위험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까지 해야 했다. 평소에도 그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다. 그때는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만, 만약에 다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도우려고 뛰어든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런 일은 머리로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40여 년을 살아오는 동안 그에게 베어 있는 그의 기본 인성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우려를 하셨던 부모님도 손가락 깍스를 풀고, 손이 많이 다친 게 아닌 걸 아시고는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셨다. 평소 ‘자식에게 존경받는 아빠가 되자’가 소신이었는데, 중학생인 딸 역시도 아빠를 존경한다고 말하며 자신을 새롭게 보는 것 같았다. 평소에는 그저 뚱뚱하고, 운동신경 없는 평범한 아빠로 봤을 텐데 자랑스러운 아빠가 된 것 같아 무엇보다 기쁘다.

의인을 지원하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 감사해

큰일을 해내긴 했지만, 아쉬운 점도 남는다. 남을 위해 위험을 무릅썼지만 손가락을 다친 그에게 정부에서는 치료비조차 지원되지 않았다. 자신은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손가락 인대 정도만 다쳐 2백만 원 정도의 치료비로 그쳤지만, 만약에 크게 다쳤음에도 정부의 보상이나 다른 지원이 없다면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때문에 그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위험에도 불구하고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손해 보지 않게 정부차원에서의 보상이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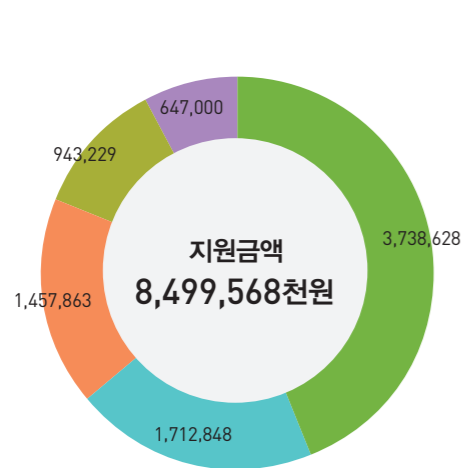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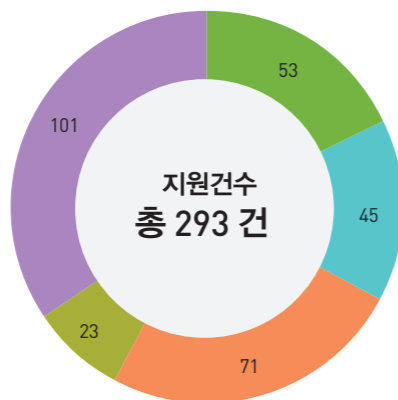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그는, 그의 의인정신을 높게 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의인으로 선정되어 수상을 하게 되었다. 사실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 그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존재조차 몰랐다. 하지만 수상을 하러 행사에 참석해 보니 자신 외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수상하고 지원한다는 걸 알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정부가 하지 못하는 참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때문에 그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이런 활동이나 지원이 언론 등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닌, 충분히 보상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게 하려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같은 이런 단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좋은 일을 하려다 불가피하게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행사 등도 재단에서 개최해 준다면 더 많은 위로가 될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어 좀 더 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그는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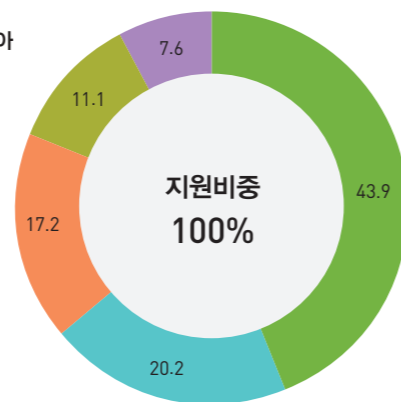
사업실적

2008~2010 사업실적

구분	희귀·난치성 질환	자살예방	저소득 치매 노인	저출산해소 및 미숙아	사회적약인	합계
지원건수 (건)	53	45	71	23	101	293
지원금액 (천원)	3,738,628	1,712,848	1,457,863	943,229	647,000	8,499,568
사업별 지원비중 (%)	43.9	20.2	17.2	11.1	7.6	100



- 희귀·난치성 질환
- 자살예방
- 저소득 치매 노인
- 저출산해소 및 미숙아
- 사회적약인



2 0 1 0 ANNUAL REPORT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LIFE INSURANCE PHILANTHROPY FOUNDATION

발행일 | 2011년 6월

발행처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49 청계11빌딩 12층

전화 | 02 2261 2291~3

팩스 | 02 2261 2294

홈페이지 | www.lif.or.kr

디자인 | 한결디자인 031-213-8686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Life Insurance Philanthropy Foundation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49 청계11빌딩 12층
TEL. 02 2261 2291~3 FAX. 02 2261 2294 www.lif.or.kr

출연사

삼성생명 | 교보생명 | 대한생명 | 신한생명 | 동양생명 | AIA생명 | 흥국생명
푸르덴셜생명 | KDB생명 | 라이나생명 | 알리안츠생명 | ING생명 | 동부생명
미래에셋생명 | 카디프생명 | 우리아비바생명